

석사학위논문

# 칼빈과 웨슬리의 자유의지 비교 연구

목원대학교 신학대학원

신학과 역사신학전공

조 병 태

2005년 12 월

# 칼빈과 웨슬리의 자유의지 비교 연구

지도교수 김 기 련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5년 12월

목원대학교 신학대학원

역사신학전공

조 병 태

# 조병태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주심위원: \_\_\_\_\_ (인)

부심위원: \_\_\_\_\_ (인)

부심위원: \_\_\_\_\_ (인)

2005년 12월

목원대학교 신학대학원

## 감사의 글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나를 위하여 이를 이를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네 구속자 여호와와 말이니라.”(이사야 48:10-11, 54:7-8)

할렐루야 !

자신 스스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던 명들과 찢겨져 얼룩져 있는 지나간 人生의 삶, 人本의 自我陶醉에 빠져 世上 모든 것이 내 것 인양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날뛰며 마음대로 固執하며 彷徨의 늪에서 헤매고 있을 때, 아버지 집으로 引導하신 保惠師 聖靈께서는 코흘리개 어린 날의 誓願을 잊지 아니하시고 되 腦이게 하시며 친히 찾아오셔서 손을 내밀어 감싸 보듬어 慰勞하시고 선지동산으로 引導하시어 오늘을 허락하신 내 生命의 主人이시요 힘이 되신 ‘여호와 일로’ 尊貴하신 하나님의 聖號를 온 맘으로 讚揚하며 感謝를 드립니다.

本 論文 執筆을 위해 精誠을 다해 指導해 주신 김기련 教授님께 머리 숙여 감사드리며. 아울러 이선희 교수님, 임동원 교수님, 고광언 牧師님 그리고 손종호 목사님께도 지면을 通하여 深心한 感謝를 드리고 激勵와 위로로 湧起를 북돋아준 사랑하는 친구 성주경 목사에게도 감사함을 밝히며 同域者로 만나 자신의 어려움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祈禱와 갖가지 도움을 아낌없이 배려해준 장준수 傳道師 內外, 호해진 전도사 내외, 이영숙 사모님께 감사드리며 나의 平生에 잊을 수 없는 고향, 舍德敎會 김영철 목사님 내외분과 기도의 後援者 안부순 권사님, 서복덕 勸士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세 분의 형님들과 세 분의 누님께 마음 저림의 罪悚함과 感謝人事를 함께 드리며 아낌 없는 사랑과 이해로 나의 부족을 탓하지 아니하고 묵묵하게 기도와 경제적 모두를 후원하며 뒷바라지는 물론 家庭事까지 힘써 이끌어 주며 자신의 괴로움을 숨기며 家族만을 위하여 살아온 삶의 同伴者 사랑하는 아내(金惠玉)의 愁苦와 끌어안고픈 내 人生에 사랑의 열매요 素望되는 아들(俊衡), 딸(晏那),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오늘을 바라보시며 환하게 웃고 계실 사랑하는 父母님께 고마움과 감사 그리고 또 다시 감사드리며 이 논고를 바칩니다.

2005년 12월 대전 구암동에서

조 병 태

# 목 차

I. 서 론 .....	3
1. 문제 제기 .....	3
2. 연구범위 .....	4
II. 칼빈의 구원론과 자유의지 .....	6
1. 구원의 순서 .....	6
1) 유효한 부름(소명) .....	7
2) 중생 .....	8
3) 회개 .....	9
4) 믿음 .....	11
5) 칭의 .....	12
6) 성화 .....	14
2. 칼빈의 자유사상 .....	16
1) 자유의 기초 .....	16
2) 그리스도인의 자유 .....	18
3) 자유의 목적 .....	31
III. 웨슬리의 구원론과 자유의지 .....	35
1. 구원의 순서 .....	35
1) 웨슬리의 인간이해 .....	35
2) 선행은혜((Preventing Grace) .....	37
3)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Convincing Grace) .....	39

4) 칭의의 은혜(Justifying grace) .....	41
5) 성화시키시는 은혜(sanctifying grace) .....	46
2. 웨슬리의 선행은총과 자유의지의 관계 .....	53
1) 선행적 은총으로서의 양심 .....	55
2) 선행적 은총으로서의 이성 .....	59
3) 선행적 은총으로서의 자유의지 .....	62
IV. 칼빈과 웨슬리의 자유의지 비교 .....	67
1. 창조된 인간 .....	67
1) 선하고 영원한 피조물 .....	67
2) 하나님의 형상 .....	68
2. 타락한 인간 .....	70
1) 인간의 타락과 그 결과 .....	70
2) 타락 후 하나님의 형상 .....	71
3. 회복된 인간 .....	74
1) 하나님의 예정과 의지 .....	74
2) 선행적 은총 .....	76
3) 성화 .....	78
V. 결    론 .....	79
참고 문헌 .....	83

# I. 서론

## 1. 문제 제기

루터와 칼빈, 그리고 웨슬리로 이어지며 신학의 꽃을 피운 복음주의 신학은 절대적인 하나님 주권사상을 그 신학의 중심내용으로 삼고 있다. 특히 복음주의 신학자인 이들에게서는 하나님의 주권사상을 보다 확고한 복음주의(福音主義)의 신학(神學)적 교리체계를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을 루터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관한 논고」에서 밝히고 있으며,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그 자신의 신학의 독특성<sup>1)</sup>을 명백히 드러내고 있고 웨슬리 역시 그의 「설교집」 및 「논문집」에서 복음주의신학의 정수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칼빈은 인간의 공로사상을 철저히 배격하는 이유로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주체이신 삼위일체(三位一體) 하나님의 자유롭고 기쁘신 뜻을 따라서 작정되었고 예정되었다고 말함이 그 근거라 하겠는데, 소위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그 이후의 사역은 인간들에게 맡겨 두셨다는 사상을 강력히 비판하면서 창조의 모든 섭리사역도 하나님의 주권(主權)이요 주체(主體)사역임을 강조하며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의 신인협동설(神人協同說)을 아주 강하게 비판하였다. 웨슬리의 신학 역시 성경적 복음주의이며 루터, 칼빈의 주장과 거의 동일(同一)함을 알 수 있다. 이렇듯 복음주의 신학은 성경(聖

---

1) 김영규, 「조직신학편람」 3권, (서울: 개혁주의성경연구소, 2003), 11. 우리가 성경 전체의 실체의 통일성을 말할 때 단순히 계시를 주신 하나님의 통일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자세히 삼위일체 하나님의 통일성과 그 독특한 구조에 대한 통일성을 말하고 인간과 관련해서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구원과 그 구원의 방식에 있어서 통일성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최초의 인간역사의 기록에서 그 출발이 어떤 출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볼 때 그런 창세기의 기록이 모든 성경의 기본 틀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성경전체의 더 기본적인 틀을 볼 때 택자들의 구원론은 인간의 창조와 타락 그리고 죄를 다루는 인간론과 인간의 타락과 죄로부터 구원을 다루는 기독교론과 근본적으로 분리할 수 없고 각각 독립적일 수 없다.

經)에서 그 신학사상의 근원을 형성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의 많은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사상에 반기를 들고 있는데 이는 신학의 시작을 신본중심(神本中心)이 아닌 인본(人本)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이며 특히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 강조함으로 구원에 있어서도 전적인 하나님의 사역을 반대하고 인간의 자리와 능력을 찾으려고 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그릇된 주장들이 교회에 넘쳐나면서부터 신앙의 모든 부분에 신인협동사상들이 편만해 지다보니 심지어 “참 하나님과 참 사람이 함께 이루어 가는 교회”라는 문구가 교회홍보에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다. 하기에 이렇게 본질이 편협된 오류들로부터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신학적 의미를 분명히 함으로써 교회의 본질과 생명을 재발견하고 새로운 모습을 되찾아야 할 때가 온 것이다.<sup>2)</sup>

본 논문은 칼빈과 존 웨슬리의 자유의지를 비교 검토함으로 두 복음주의 신학자들의 견해가 서로 일치한다는 사실을 검증함으로 미흡하나마 몰이해로 인한 거두교과 간의 갈등고리였던 신학적인 이해와 본질의 왜곡으로 인한 편견된 현상 때문에 빚어진 현대의 잘못된 인본주의의 신학적 사고를 바로 잡는데 그 목적이 있다.

## 2. 연구범위

본 논문은 칼빈의 「기독교 강요」와 존 웨슬리의 「설교선집」을 그 일차 자료로 하여 연구하며, 기타 관계되는 여러 학자들의 학술논문과 단행본들을 자유롭게 활용, 참고하여 연구한 바를 서술하고자 한다.

---

2) 김기련, “칼빈의 교회이해,” 「신학과 현장」 제12집 (2002): 8.



제1장은 서론으로, 논문의 연구목적과 범위를 서술하였고,  
제2장에서는 칼빈이 주장하는 구원론과 자유의지를 논할 것이며,  
제3장에서는 존 웨슬리의 자유의지론을 그의 설교 집 및 논문집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으며,  
제4장에서는 두 신학자의 자유의지 사상을 비교 검토하여 서로의 신학이 일치점을 찾아 논증하겠고,  
제5장은 결론으로, 본문에서 다루었던 내용들을 요약, 정리하고 한국교회에 대하여 제언하는 것을 끝으로 본 논문을 맺고자 한다.

## II. 칼빈의 구원론과 자유의지

칼빈에게 있어서 인간의 삶에 대한 주요 목적을 찾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앎이라 하겠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칼빈 신학의 근본은 신 중심적이다. 칼빈 신학의 중요성은 인간이 세계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배우고 하나님의 섭리에 적응하는 일이다.<sup>3)</sup> 본 장에서는 칼빈의 구원론과 자유의지에 대한 주장을 「기독교 강요」에 나타난 구원의 순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1. 구원의 순서

구원의 순서는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구원역사를 인간의 마음에 적용시키는 것이며<sup>4)</sup> 칼빈이 말하는 구원론은 예정론의 맥락에 놓여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총에 관한 것이므로 서두에서 밝힌 것처럼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나타난 것을 중심으로 연구한다.

칼빈이 주장하는 구원 순서에 대한 근거는 로마서 9장 29-30절 “정하시오, 부르시오, 의롭다 하시오, 영화롭게 하셨다.” 라는 기록에 핵심을 두며 이 사상을 논리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구원의 순서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순서는 「기독교 강요」를 중심으로 볼 때 ① 예정, ② 소명, ③ 중생, ④ 믿음, ⑤ 회개, ⑥ 칭의, ⑦ 성화, ⑧ 견인, ⑨ 영화이며, 이 신학을 지배하는 세 가지 기본적인 관념들은 하나님의 절대주권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이며, 예정론이다.<sup>5)</sup>

3) 김기련, 「세계교회사」 (대전: 도서출판 근화, 2002), 340-341.

4) 김성환, 「칼빈주의 해설」 (서울: 엠마오, 1984), 201.

5) 김기련, 「종교개혁사」 (대전: 목원대학교 출판부, 2001), 287.

## 1) 유효한 부름(소명)

칼빈의 구원순서는 예정론을 기초로 하고 있기에 예정 다음은 택한 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소명이 되겠으며 이 부르심은 선택의 증거이다. 하나님이 자신 앞에 숨겨두었던 선택을, 부르심으로 표명함은 하나님이 이 순서를 택하신 때문이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이미 아들의 위치에 택하셨으나 칼빈은 부름 받은 자만이 이 위대한 공훈을 소유하게 된다고 본다. 하나님은 택한 자들을 자녀 삼으시고 그들의 아버지가 되신다. 또 부르심으로 그들을 가족 가운데 받아들이고 자신을 그들에게 결합시켜 하나가 되게 하신다. 성경은 선택에 부르심을 결부시켜 말하면서 거기에는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공훈 외에 아무 것도 구해서는 안 됨을 충분히 시사해 준다.<sup>6)</sup> 부르심의 방법은 은혜에만 의존하는 것이다.

부르심은 말씀의 들음과 성령의 조명이 있을 때 성립된다. 말씀의 빛은 값없이 비추이나 하나님의 공훈은 모든 사람을 위함이 아니다. 버려진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거절하는 것이므로 무거운 심판이 그들에게 남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빛나게 하시려고 성령의 효과를 그들에게서 취해 가시기 때문이다. 따라서 택한 자들에게 내면적 부르심은 거짓 없는 구원의 보증이 된다.<sup>7)</sup> 칼빈의 예정에 대한 연구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하고 그 부르심으로 끝나게 하자고 주장한다.<sup>8)</sup>

부르심은 보편적 소명과 특별 소명이 있는데 보편적 소명은 하나님께서 외적말씀 전파를 통해 모든 사람을 부르시지만 이것은 사망에 이르는 향기와 무거운 단죄에서 지연되는 부르심이며, 특별소명은 하나님께서 신자에게만 주시는 것으로 전파된 말씀을 그들의 마음에 뿌리 내리도록 성령

---

6) 존 칼빈, 「기독교강요」, 김충호 역 (서울: 한국출판사, 2000), III. 24, 1, 이하 「기독교강요」는 Inst로 표기하고 권, 장, 절로 표기한다.

7) Inst, III. 24, 2.

8) Inst, III. 24, 4.

의 조명을 실현하시는 경우이다. 때로는 일시적 조명을 받은 자도 이에 참여하게 되나 그들은 후에 배신의 연고로 버려진다.<sup>9)</sup>

## 2) 중생

소명과 중생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sup>10)</sup> 중생 없는 구원론은 언급할 수 없다. 중생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의식하는 것과 무관하게 성령께서 직접 나게 하시는 것으로 인간의 의식 밖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기에 중생은 인간이 거절 하거나 용납할 수 없다. 즉 하나님의 절대은총에 의한 예정은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의존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칼빈주의 5대 교리중 하나인 불가항력적 은혜<sup>11)</sup>를 이해해야 할 것이다.

본질상 죽은 자연인이 생명을 되찾을 수 있음은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하여 지식으로 비취주실 때에만 가능하다. 이때 인간은 죽음에서 살아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다.<sup>12)</sup> 중생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이루어지며 아담 안에서 타락하여 상실한 하나님의 의 가운데 회복되는 것으로<sup>13)</sup> 말살된 하나님의 형상<sup>14)</sup>을 우리 속에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그 목적이다.<sup>15)</sup>

엄밀한 의미로 중생은 새 생명의 원리를 인간 속에 주시고 영혼의 지배적 성향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행위로 정의할 수 있다. 중생은 인간의 근본적 변화로 전 인격에 영향을 미친다. 이것은 성화와 같이 점진적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순간적 완성되어지는 것이다.<sup>16)</sup> 중생으로

---

9) Inst, III. 24, 8.

10) Louis Barkhof, 「기독교 교리 요약」, 박수준 역 (서울 : 소망사, 1980), 137.

11) L. B. Boettner, 「개혁신의 신학연구」, 홍의표 역 (서울 : 보문출판사, 1975), 192.

12) Inst, “하나님 앞에서 인정되는 의는 은혜에서 오며 아무리 선한 행위일지라도 행위에서 오는 것은 아니다,” III. 14, 5, 309.

13) Inst, III. 3, 9.

14) Inst, III. 1, 2.

15) Inst, III. 3, 9.

16) Louis Berkhof. 「기독교 교리 요약」, 137.

그리스도는 우리 것이 되시며, 우리는 그의 몸에 접붙임 바 되어 그의 영을 통해서 살고 그의 통치를 받게 된다. 또 중생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므로 옛 사람은 그의 능력으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죄의 몸은 죽고, 타락한 성품은 힘을 못 쓰게 되는 사건이다. 이 후에야 우리는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된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를 추구하시는데 이는 우리의 죄를 그냥두지 않으시고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다.<sup>17)</sup> 중생의 목표는 신자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의와 신자의 순종과 조화를 통한 일치를 나타내는데 있으며 이 때 그들은 자녀로 선택되었음을 확신케 되는 것이다.<sup>18)</sup>

### 3) 회개

회개는 언제나 신앙에 따라 올 뿐만 아니라 신앙으로부터 나온다. 그것은 죄인이 사탄의 전제는 물론 죄의 멍에와 죄악의 비참한 예속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기 위해 죄 사함과 번제가 복음의 선교를 통해 제물 되었기 때문에 누구도 과거 잘못으로부터 정로(正路)로 돌아서지 않으면 복음의 은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sup>19)</sup>

하기에 회개는 단순히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생을 돌이키는 것이며 그것은 바르고 거짓 없는 하나님 경외에서 나오는 것임으로 육과 낡은 자아를 죽이며 영이 소생하는 데서 나타난다.<sup>20)</sup> 회개는 양면성이 있다. 이는 죄를 인식하는 것과 받을 심판을 의식하고 영혼의 슬픔과 고통으로 낙담하는 것인데, 이것은 첫 번째 회개로 통회라 부르며 새로 사는 것은 신앙에서 일어나는 위로를 말하며 이는 사람이 죄를

17) Wilhelm Niesel, 「칼빈의 신학」, 이종성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1), 125.

18) Inst, III. 6, 1.

19) Inst, III. 3, 1.

20) Inst, III. 3, 5.

인식하므로 좌절과 두려움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그리스도를 통한 긍휼과 구원을 보게 됨으로 자신을 분기시켜 용기를 되찾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말한다.<sup>21)</sup> 다시 말하면 회개는 죽이는 것과 새로 사는 것이다.

칼빈이 말하는 회개는 율법적 회개와 복음적 회개로 나누어 말하는데, 먼저 율법적 회개는 죄인이 죄의 화인과 상처를 입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오는 공포로 혼란에 빠진 상태를 말하며 복음적 회개는 죄인이 뼈아프게 생각하나 거기에 머물지 않고 자기 상처를 위한 약으로, 공포에 대한 위로로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이다.<sup>22)</sup>

회개와 신앙은 분가분리의 관계가 있으나 칼빈은 이를 구분하여 말한다. 회개의 뜻은 신자의 생활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전향하는 것이며 그 전향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할 때 일어나고 그것은 옛 사람은 물론 육신을 죽이는 것이며 성령에 의해 새로 사는 것이다.<sup>23)</sup> 이 갱생(更生)은 순간의 사업이 아니라 죄와의 투쟁에 있어서 신자의 지상생활 중 계속되어야 하는 것인데 비록 허물은 씻겼으나 죄의 사실이 정육 가운데 남아 있기 때문이다.<sup>24)</sup>

회개의 열매는 하나님에 대한 경건의 의무와 사람에게 대한 사랑으로써 중생, 성결, 순결 등으로 나타나며, 자기 생활을 하나님의 법에 표준 하여 회개한 증거를 분명히 보임으로써 성령께서 지적하는 마음의 근원적 불결을 정죄하는 내적회개로부터 진정한 회개를 나타내는 외적 회개로 나아가는 것을 말한다.<sup>25)</sup>

이 회개는 인간이 하는 것 같으나 하나님이 하게 해 주셔야 가능하므로 하나님의 독자적 행동에 기인하는 것이다. 회개는 지, 정, 의의 요소를 포함해야 하며 회개는 지은 죄를 깨닫는 것이다.<sup>26)</sup> 회개는 지적 수준에서

---

21) Inst, III, 3, 3.

22) Inst, III, 3, 4.

23) Inst, III, 3, 5.

24) 전경연, 「칼빈의 생애와 신학사상」 (서울: 한국 신학대학 출판부, 1984), 146.

25) Inst, III, 3, 16.

26) Berkhof, *Systematic theology*, (Eerdmana, 1979), 457.

정적 수준으로 향상 되어야 하며 완숙한 회개는 의지적 단계에까지 이르러야 한다. 이것은 과거 지향적인 것이 아니라 미래 지향적인 삶을 결단하는 것이다.<sup>27)</sup>

#### 4) 믿음(신앙)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은사가 우리에게 적용되어 우리가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복음을 믿게 조명하고 새 피조물로 나게 하시며 부패와 더러움에서 씻어 주심으로 가능한 것이다.<sup>28)</sup> 우리가 이를 얻고 구원을 소유함은 신앙에 의한 것이며<sup>29)</sup>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요,<sup>30)</sup> 하나님의 은사이다.

칼빈은 신앙을 정의함에 있어서 신앙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확실한 인식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값없이 주시는 진리의 약속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성령을 통해 우리 심령위에 인치시는 것<sup>31)</sup>이라고 말한다.

신앙의 대상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하나님은 신앙의 목적지요 그리스도는 그 나아갈 길이다.<sup>32)</sup> 또 신앙의 근거는 의존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분명히 진술함에 있고 무조건적인 맹종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sup>33)</sup>

신앙의 인식은 논증으로 가르쳐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파악되고 어느 한계를 넘어서는 이해되지 않는 것을 납득하는 것이기에<sup>34)</sup> 신앙은 인간의 이해가 아니라 확실성에 의존하는 것이다.

칼빈은 신앙의 열매를 화평으로 보고 신앙의 처음, 아주 작은 것이라도

---

27) Ibid., 482.

28) Inst, III. 1, 4.

29) Inst, III. 1, 1.

30) Inst, III. 1, 4.

31) Inst, III. 2, 7.

32) Inst, III. 2, 1.

33) Inst, III. 2, 2.

34) Inst, III. 2, 14.

마음 속에 떨어지면 벌써 우리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시작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아무리 약한 신앙도 신앙으로서의 확실성을 갖는 것이다.<sup>35)</sup> 그는 예정론에 입각하여, 신자는 궁극적 신앙으로 승리하며 불신앙이 신자의 마음을 결코 점령할 수 없다고 본다.<sup>36)</sup> 신앙으로 승리에 대한 확실성을 갖는 것은 신자가 그리스도와 한 몸 되는데 있음이다.<sup>37)</sup>

## 5) 칭의

예정하사 택하시고 부르신 자를 거듭나게 하시며 믿음을 주셔서 회개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신앙은 칭의에서도 유효하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 주심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무죄함을 통해 하나님과 화해되어 심판주가 아니라 자비로운 아버지로 모시게 하심과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화되어 삶의 결백과 순결을 향해 전심하게 하심인 것을 중생에서 언급하였는데, 칭의를 언급함은 하나님의 공화로 값없이 얻는 의를 신앙이 선행을 결여하지 않으며, 성도에게 선행이 무엇인가를 이해시키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파악하고 구원을 확립해 주는 기초가 됨을 강조해 주기 위함이다.<sup>38)</sup> 칭의의 개념은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의로 간주되고 용납되는 것이다.<sup>39)</sup>

칭의 교리는 개신교신학의 출발점이며 교리이기 이전에 체험이다. 칼빈은 이것을 「기독교 강요」에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말한 다음, 기독교의 제일 되는 요지로 의인(義人)을 설명한다.<sup>40)</sup> 칭의는 의의 전가이며 그리스

---

35) Inst, III, 2, 19.

36) Inst, III, 2, 21.

37) Inst, III, 2, 24.

38) Inst, III, 11, 1.

39) Inst, III, 11, 22.

40) 전경연, 「칼빈의 생애와 신학사상」, 147.



도를 통해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죄 사함 받는 것이다.<sup>41)</sup> 칼빈은 스콜라주의의 선행, 즉 행함으로 얻는 의에 대하여 반박하며 거듭난 자의 선행도의 의를 가져올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만 의인됨을 주장한다.<sup>42)</sup> 칭의는 선행에 대한 값이 아니고 값없는 은혜인 것이다.<sup>43)</sup> 칭의의 근거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의롭기 때문에 우리의 밖에 있다.<sup>44)</sup> 칭의의 방법은 놀라운 것이며 그리스도의 의로 옷이고 심판대에서 두렵지 않으며 인간 스스로는 정죄하지만 외부에서 의롭다함을 선고 받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시고 의롭다 하심으로 칭의를 원하는 자는 자신 안에 있는 조그만 의도 거절하고 우리 밖에 있는 의, 곧 그리스도에게 도피 해야만 한다.<sup>45)</sup> 이것으로 칼빈의 칭의는 “오직 우리 밖에”, 이 말을 다른 말로 해석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될 수 있음을 지적하므로 중생교리만 아니라 칭의 교리에서도 계시신학을 추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sup>46)</sup>

칼빈은 유죄한 인간을 무죄하다고 하는 칭의가 법적 관계로 전환되어 짐을 강조한다.<sup>47)</sup> 이는 심판자 하나님이 유죄 고소 받은 자를 용서하시는 사법행위이다. 의인의 과정은 최고 재판자로 말미암은 은혜의 용서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다.<sup>48)</sup>

칭의의 목적은 하나님만이 의로우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의롭기 때문이다. 자기 의를 자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것이기에<sup>49)</sup> 자기의 의를 생각하는 한 양심의 평안은 있을 수 없고 값 없는 하나님의 의가 선물로 부여될 때만 양심의 평안

---

41) Inst, III. 11, 4.

42) Inst, III. 11, 15.

43) Inst, III. 11, 18.

44) Inst, III. 11, 17.

45) Inst, III. 11, 11.

46) Wilhelm Niesel, 「칼빈의 신학」, 130.

47) Inst, III. 12, 1.

48) 전경연, 「칼빈의 생애와 신학사상」, 148.

49) Inst, III. 13, 1.

을 얻을 수 있다. 칭의에서 신앙은 수동적이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없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에게 없는 의를 받는 것이다.<sup>50)</sup>

결론적으로 칭의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종의 형상을 취하시고 성부께 복종하신 그 순종을 믿음으로 그 의를 옷 입는 죄인이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다. 그것은 무죄하기 때문이 아니라 은혜의 전가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 6) 성화

칭의의 상태는 하나님께 헌신된 생활을 요청한다. 성화란 죄인을 순결하게 하시며 죄인의 전 성질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하여 선행하도록하시는 성령의 계속적이고 은혜로운 작용이다.<sup>51)</sup> 칼빈에 의하면 죄 용서와 성화 또는 의인과 중생은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합일로 얻게 되는 최상의 선물이라고 말하며 「기독교 강요」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께 부여하신 은총과 그리스도가 가지신 모든 것을 우리의 것이 되게 하는 그리스도와의 합일<sup>52)</sup> 즉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내주는 신앙을 통해 성령께서 이루심인 것을 말한 뒤에 먼저 성화를 말하고 의인교리를 발전시키는 것이 칼빈의 특수한 면으로, 성화가 바로 이해될 때 비로소 의인론이 잘 이해되며,<sup>53)</sup>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합일되고 접붙임을 받는 것은 그의 영으로 사는 것이며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내주할 뿐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를 소유함을 말한다. 그리스도와 합일되고 그의 영으로 사는 것이 성화의 삶이다.<sup>54)</sup> 칼빈은

---

50) Inst, III. 13, 3.

51) Louis Barkhof, 「기독교 교리 요약」, 156.

52) 황성규, “칼빈의 의인론,” 「칼빈의 신학적 이해」 (서울: 한신대학교 출판부, 1978), 93-94 ; Inst, III. 1, 1.

53) Inst, III. 3, 1.

54) 황성규, “칼빈의 의인론,” 97-98.

단순히 회개를 성화로 설명하며 성화의 목표는 아담의 범죄로 더러워지고 상실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다시 회복하는 것이라고 한다.<sup>55)</sup>

그런데 칼빈은 재 침례파가 주장하는 기독교의 완전, 즉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죄한 상태로 회복 되었으므로 더 이상 육신의 정욕을 억제할 필요가 없고 성령을 따라 행동하면 미로에 빠질 우려가 없다는 사상을 신랄하게 비판한다.<sup>56)</sup> 그는 신자들도 범죄하며 그것은 중생한 사람 속에 타다 남은 악의 부시개가 있기 때문에 불같은 정욕이 솟아나와 범죄 하도록 자극하는 것이라고 한다.<sup>57)</sup> 칼빈은 어거스틴의 신자들의 죄악성에 대한 견해를 따르는데<sup>58)</sup> 어거스틴은 죄악성을 연약 이라고 한 대신, 칼빈은 그것을 죄라고 지적한다.<sup>59)</sup> 그는 신자들에게 죄는 지배력을 상실 하였어도 내주한다.<sup>60)</sup> 고 보며 우리는 성령께서 성결케 하심으로 정화되나 죽을 육체에 거하는 한 많은 죄와 연약으로 싸여 있음으로 완전을 향해 꾸준히 전진하며 얽매이기 쉬운 죄를 날마다 대적해야 한다.<sup>61)</sup>고 주장한다. 이처럼 칼빈은 순식간에 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 성화 과정을 말하며 여전히 죄인이기에 평생 회개해야 함을 말한다.<sup>62)</sup>

칼빈은 성화가 일어나는 근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택과 소명에 의존하는 것이며 그의 은총에 근거하는 것이지 우리 자신의 노력이나 선행, 의에 의존하지 않는다.<sup>63)</sup>고 언급한다.

---

55) Inst, III. 3, 9.

56) Inst., III. 3, 14.

57) Inst, III. 3, 10.

58) Inst, III. 3, 13.

59) Inst, III. 3, 10.

60) Inst, III. 3, 11.

61) Inst, III. 3, 14.

62) Inst, III. 3, 8.

63) 황성규, “칼빈의 의인론,” 99.

## 2. 칼빈의 자유사상

기독교 강요에 나타난 자유의 구분은 칼빈의 자유사상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해 주었다. 여기서는 「기독교 강요」에 나타난 칼빈의 자유사상을 직접 살펴보겠는데 우선 자유를 가져다주는 기초가 무엇인지를 살펴본 다음 그것에 따른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자유가 궁극적으로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를 칼빈의 의도에 따라 밝히고자 한다.

### 1) 자유의 기초

칼빈이 말하는 자유는 무엇으로부터의 탈피나 해방 자체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근대 사상에서의 자유란 “우주적 질서를 객관화하고 인간의 자기성을 그와 맞서 확보하려고 할 때 실현되는 것”<sup>64)</sup>으로 스스로의 노력과 성취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것은 자유의 기초가 인간 자신에게 있다는 것으로 말하나 칼빈은 자유의 기초를 인간에게 두지 않는다. 그는 「기독교 강요」 최종판에서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구원을 다룬 제3권<sup>65)</sup>으로 옮겨놓았다. 여기서 그는 이신칭의를 말한 다음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 언급한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기초가 이신칭의에 있음을 뜻하며 칭의가 자유의 기초가 된다는 것을 그 자신이 다음과 같이 말함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자유는 특히 칭의에 부속적으로 따르는 것이며, 칭의의 힘을 이해하

---

64) 강영안, “자유개념의 변형구조,” (대구: 기독교대학설립동역회 출판부, 1992), 24.

65) Inst, III.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사람의 마음속의 성령의 역사(1장), 믿음(2장), 회개(3-5장), 그리스도인의 삶(6-10장), 이신칭의(11-18장), 그리스도인의 자유(19장), 기도(20장), 예정(21-24장), 최종부활(25장).

는데 상당한 도움이 된다. 참으로 하나님을 진지하게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 교리에서 주어지는 엄청난 유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경건치 못하고 루키아노스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가르침을 그들의 지혜를 짜내 교묘하게 회롱한다.<sup>66)</sup>

이와 같이 칼빈은 자유를 칭의에 기초해서 이해하는데, 칼빈의 칭의관은 그리스도인에게 자유를 가져다주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이다. 여성관과 관련해서 칼빈의 자유에 대해 연구한 더글라스(Douglass, J. D)는 “성육신에 나타난 관대하신 하나님의 사역으로 인해서 압제에 억눌리고 양심의 번민으로 지친 자들이 ‘자유’함으로 해방되는 것”이 칼빈의 자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의 틀이라고 했다.<sup>67)</sup> 그도 역시 자유의 기초가 하나님에 의한 구원사역으로 주어지는 칭의로 보았다. 김영한 교수 역시 “기독교의 자유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의롭다 인정받은 신자가 이 세상에서 자유함을 받은 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살아야 할 주관적 기반임을 제시해준다.”<sup>68)</sup>고 말함으로 칼빈의 입장에 동의한다.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개인적 적용인 이신 칭의가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기초가 된다는 사상은 칼빈 자신의 것이 아니다. 성경적 근거를 지니고 있다.<sup>69)</sup> 따라서 이신 칭의가 자유의 기초라는 칼빈의 사상은 성경에 근거한 것으로서 확실한 진리로 자리 잡는다. 자유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요한 특징이다. 이러한 자유가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 기초해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곧 삶의 기초이자 동기가 된다는

---

66) Inst, III. 3, 19.

67) J. D. Douglass, *Calvin, Woman, Freedom*, 「칼빈, 여성, 자유」, 심창섭 역 (서울: 무림출판사, 1990), 13.

68) 김영한, 「한국기독교문화신학」 (서울: 성광문화사, 1995), 177.

69) 눅4:18, 갈5:1, 요8:32등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 따른 믿음을 지닌 자들에게 자유가 주어진다 것을 입증하려는 성경 구절은 많다. 또한 신앙과 칭의는 그리스도인에게 자유를 구속으로 자유를 가져다주는 것으로서 바울 사상의 근간을 이루는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G. E. Ladd, *A Theology Of The New Testament*, 「신약신학」, 신성종, 이한수 공역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91), 491ff.

것을 말한다.<sup>70)</sup>

칼빈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자유의 기초가 칭의라 함을 들어 첫째, 자유 이해의 시작은 구원과 관련해서 이해하는 것이며 둘째, 칭의에 따른 자유는 기본적으로 영적인 성격을 지니고 셋째, 자유의 영적인 성격은 세상의 어떤 것에도 종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며 넷째, 자유는 삶에서 드러난다. 따라서 삶의 질서와 관련을 맺는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영적일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것이기에 구원의 맥락에서 시작해서 삶의 맥락까지 이어진다. 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러면 칭의에 기초하고 삶에서 드러나는 그리스도인의 영적, 그리고 실제적 자유란 무엇을 말하는가?

## 2) 그리스도인의 자유

칼빈은 “자유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리스도나 복음의 진리나 영혼의 내적 평화에 대하여 모두 바르게 알 수 없다”<sup>71)</sup>고 말함으로 자유 이해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칭의에 따라 영적인 내면적 자유와 삶에서 드러나는 외면적 자유로 구분할 수 있다. 「기독교 강요」 제3권 19장에서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자발적 순종으로서의 자유, 아디아포라에서의 자유를 말한다. 그러나 「기독교 강요」 전체를 보면 자유는 보다 확대된다. 칼빈은 율법과 아디아포라와 관련된 것<sup>72)</sup>뿐만 아니라 인간 의지(제2권 2-5장)와 섭리(제2권 4장 6. 7)에 관한 자유도 언급한다.<sup>73)</sup> 이 가운데 인간 의지와 율법과 관련한 자유는 내면적 자유이고, 섭리와 아디아포라와 관련한

---

70) I. J. Hesselink, "Essays on Calvin and The Reformation in Honor of Ford Lewis Battles," 「그리스도, 율법, 및 그리스도인」; Donald K. McKim, ed., 「칼빈 신학의 이해」, 이종태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1), 245.

71) Inst, III. 3, 19.

72) Ibid에서 말하는 자유의 핵심 내용이다.

73) 박건택, 「칼빈과 설교」 (서울: 도서출판 나비: 1988), 74ff.

자유는 외면적 자유에 해당한다.

(1) **내면적 자유** : 자유의 시작은 인간의 내면에서 비롯된다. 인간은 누구나 의지의 자유(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자신을 얽매이게 했던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경험한다. 이 인간의지로 부터의 자유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는 대표적인 인간 내면의 자유이다.

① 인간 의지의 자유 : 칼빈에 따르면 인간은 누구나 의지의 자유 즉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자유의지는 철학자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선행과 악행을 의지의 힘으로 좌우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sup>74)</sup> 그리고 의지와 관련한 자유를 교부들의 전통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하면서 자유의지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말한다.

스콜라 학자들은 자유를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 첫째는 필연으로부터의 자유, 둘째는 죄로부터의 자유, 셋째는 불행으로부터의 자유이다. 이에 대한 칼빈의 설명은 처음 것은 사람의 본성에 내재한 것이므로 결코 빼앗을 수 없다. 그러나 다른 두 가지는 죄로 인해 잃어 버렸다. 나는 기꺼이 이러한 구별에 찬성하지만 필연(necessity)을 혼동한다면 그것을 잘못이라고 생각한다.<sup>75)</sup>고 말 한다

이와 같이 칼빈은 인간 의지가 필연적인 것에서 자유 한다고 본다. 이것은 인간이 자기 결정 즉 선택의 자유를 가졌다는 것으로<sup>76)</sup> 여기서 필연은 강제가 아니다. 칼빈은 필연(necessity)과 강제(compulsion)를 혼동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한다. 이 둘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칼빈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자유를 빼앗긴 의지는 필연적으로 악에 끌려들거나 인도된다고 하는

---

74) Inst, II, 2, 3.

75) Inst, II, 2, 5.

76) Inst, II, 2, 26. 그러나 이러한 선택을 감지하는 것은 의지가 아니라 이성이다.

나를 너무 지나치다고 본다면, 그것이 더 이상하다. 필연(necessity)과 강제(compulsion)를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말을 싫어한다.<sup>77)</sup>

인간 의지의 자유는 필연적 악에서 떠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은 그것을 불가능하게 했다.<sup>78)</sup> 이 때문에 인간의 의지는 부자유하다. 사람은 자유의지를 악용해서 자기와 및 자기의 의지 모두를 잃어 버렸다. 결국 자유의지는 노예가 되어 더 이상 의를 행할 수 없게 되었다. 의지의 자유가 하나님의 은총에 의한 해방을 기다리는 노예의지 상태로 있는 것이다. 칼빈은 이러한 노예의지를 어거스틴의 자유의지론을 들어 설명한다.<sup>79)</sup>

그(어거스틴)는 의지가 자유로운 것은 사실이지만 해방되지는 않았다. 곧 의로부터는 자유롭지만 죄의 노예가 되었다고 말한다. 사람들은 의지의 결정에 의해서만 의로부터 자유롭게 되며 구주의 은총에 의하지 않고서는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지 못한다.<sup>80)</sup>

칼빈이 말하는 자유의지는 의지 자체로 자유롭지만 죄의 노예가 되는 필연성을 지닌다. 필연적인 것에 대한 의지의 자유는 죄를 향하는 의지의 필연성을 지닌다. 인간은 이제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고서는 죄와 악을 떠나 선을 행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sup>81)</sup>

②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 인간 내면의 자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율법에 관련된 자유이다. 칼빈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기독교 강요」 제3권 19장에서 자유를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 첫째와 둘째는 율법과 관련한 자유로,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에 대해서 칼빈은 다음과

---

77) Inst, II. 3, 5.

78) Inst, I. 15, 8.

79) Inst, II. 2, 8. 칼빈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어거스틴은 이 문제에 대하여 사람은 자유의지의 큰 힘을 받고 창조되었으나 죄를 지음으로써 잃어 버렸다고 설명한다.”

80) Ibid.

81) Inst, II. 2, 6. ; Vincent. Brummer, “Calvin, Bernard and Freedom of The Will,” *Religious Studies* 30 (1994): 451.



같이 말한다.

신자들의 양심은 하나님 앞에서 칭의에 대한 확신을 얻는데 있어서 율법에 의한 의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율법으로부터 뛰어 넘어 가야 한다. 다른 곳에서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율법으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에 칭의에 대한 완전한 소망을 완전히 버리게 되든지, 아니면 율법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야 한다.<sup>82)</sup>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있다는 점에서 구약의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다. 이점과 관련해서 파커(Parker, T. H. L.)는 “우리가 율법을 어김으로 양심이 괴로워할 때 율법은 조금도 우리를 돕지 못한다. 단지 계속해서 고발을 반복하고 우리로 하여금 죄책감을 더 깊게 느끼게 할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가 있다. 하나님 앞의 심판에서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롭다”<sup>83)</sup>고 말한다. 칼빈은 율법으로는 아무도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에 근거해서 “율법이 의”라는 도식(塗飾)을 넘어서도록 요구한다.<sup>84)</sup> 구원의 확신은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다. 율법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된다. 따라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는 율법에서 자유하다.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에 의를 위해서 율법에 매이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다.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율법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누려야 한다. 구원을 포함한 바른 삶의 시작은 바로 이러한 영적 자유에 있다. 영적인 자유를 얻어 마음 속 감정을 진심으로 하나님께 바쳐 기록과 의를 함양하도록 노력해야 한다.<sup>85)</sup> 이와 같이 그리스도가 가져다주는 의는 새로운 삶의 동기가 된다.<sup>86)</sup>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는 의에 있어서 행위도

---

82) Inst, III. 19, 2.

83) T. H. L. Parker, 「존 칼빈의 생애와 업적」, 김지찬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1994), 113.

84) J. D. Douglass, 「칼빈, 여성, 자유」, 47

85) Inst, III. 6, 5.

배제한다. “칭의에 대해서 논할 때는 율법을 언급하지 않으며 행위에 대한 고려를 전적으로 배제하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만을 받아들이며 우리 자신을 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것이다.”<sup>87)</sup> 이와 같이 율법으로부터 주어지는 자유는 외적인 어떤 것에도 속박되지 않는 절대 내면적인 성격을 지닌다.<sup>88)</sup> 즉 자유는 영적인 것이다<sup>89)</sup>

구원과 관련하여 우리의 양심에 자유를 얻는데 율법이 배제된다고 하면 율법은 전혀 무익한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칼빈은 율법이 그리스도인에게 불필요하다고 추론하는 것은 바르지 못하다고 말한다.<sup>90)</sup> 그 이유는 율법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보이려고 우리의 죄를 지적하며 우리의 파멸과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가르치기 때문이며,<sup>91)</sup> 율법이 그리스도인의 양심에 관계하지는 못해도 그들에게 선을 행하도록 끊임없이 가르치며 충고하고 권면하기 때문이다.<sup>92)</sup> 칼빈이 논하는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다.<sup>93)</sup>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율법에 나타내셨다.<sup>94)</sup> 칼빈은 율법의 역할과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에 대하여 혼란하지 하면서 다음과 같이 명백하게 구분해 준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의무를 알려주고 거룩한 결백에 대한 열심을 일으키는 것은 율법의 역할이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호의를 얻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불러갈 때 무엇이라고 대답하고 어떤 확신으로 설수 있을까 하는 문제로 양심이 고민할 때에는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율법에 의한 완전성이 전혀 이르지 못하는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의로서 드러내야 한다.<sup>95)</sup>

86) I. J. Hasselink, 「그리스도, 율법, 및 그리스도인」, 245.

87) Inst, III. 19, 2.

88) John Calvin, Mary Beaty, and Benjamin W. Farley, *Calvin's Ecclesiastical Advic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1), 127.

89) Parker, 「존 칼빈의 생애와 업적」, 115.

90) Inst, III. 19, 2.

91) Inst, II. 7, 15. 그리고 Wilhelm Niesel, 「칼빈의 신학」, 32.

92) 이것을 가리켜 율법의 제3용법이라고 한다.

93) Inst, I. 17, 2.

94) Inst, II. 8, 59.

율법과 자유문제에서 나타나는 혼란<sup>96)</sup>은 칼빈이 말하는 두 번째 자유에서 극복된다. 율법과 관련해서 주어지는 두 번째 내면적 자유는 “양심이 율법의 필연성에 강요됨으로 준수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멍에를 벗은 양심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의지의 자유”<sup>97)</sup>이다.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사람은 거기에 머무르지 않는다. 그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따른다. 율법 자체의 필연성에 강요되지 않고 자발적으로 율법을 준수한다. 곧 그리스도를 위해서 율법의 노예상태로부터 구원함을 얻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주는 하나님의 법을 기꺼이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sup>98)</sup>

여기서 우리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가 곧 방종(放縱)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진다는 것을 알게 된다. 바로 이 지점이 칼빈이 말하는 자유는 율법 폐기론자들(antinominalists)<sup>99)</sup>의 허무한 주장과 다른 점이다. 자발적 순종에 이르는 자유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다음에 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사실 파커(Parker)가 말한 대로 우리는 평범한 상태에서 율법을 지킬 수는 없다.

율법은 우리에게 온 마음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명령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명령을 지킬 수가 없다……. 율법은 단지 명령하고 위협하며 우리를 노예처럼 다룬다. 이것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

95) Ibid.

96) 율법에서 완전히 자유 하지만 율법이 여전히 삶에 효력이 있다는 것은 모순처럼 보여 진다.

97) Inst, III. 19, 4.

98) Douglass, 「칼빈, 여성, 자유」, 47.

99) Inst, III. 19, 3. 율법이 더 이상 우리 삶에서 필요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율법은 우리의 죄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폐기되었고 끊임없이 우리가 도달해야 할 목표가 된다.

일은 심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sup>100)</sup>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어기면 벌 받기 때문에 지키려고 노력하는 노예가 아니다. 믿음에 의해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의 마음(양심)은 보다 자발적이며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sup>101)</sup>을 실천한다. 이처럼 율법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 칼빈은 율법 아래 있을 때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율법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다른 지를 아래에서 잘 보여주고 있다.

율법의 멍에에 매인 사람들은 주인으로부터 매일 일정한 일을 하도록 명령을 받는 종과 같다. 종들은 명령받은 일을 정확하게 완수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고 느끼며 주인 앞에 감히 나가지 못한다. 그러나 아버지로부터 너그럽고 솔직한 대우를 받는 자녀들은 불완전하고 흠이 있는 일까지도 아버지 앞에 내놓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원하신 대로 일을 완수하지 못했을지라도 그들의 순종한 행위와 기꺼이 순종하려는 마음을 아버지께서 받아주시리라고 믿기 때문이다.<sup>102)</sup>

율법으로부터 양심의 자유를 얻은 자들에게 율법은 더 이상 주인이 아니다. 율법은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율법을 다스리고, 삶 가운데 실천해야 하는 자유의 대상이다. 칼빈은 철학적 개념이나 무분별한 방종을 지향하는 자유를 논함이 아니라 삶의 근원을 구성하는 본질적 자유개념을 말하고 있다. 비록 율법으로부터의 자유가 하나님의 뜻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자유에까지 이르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에게 남아있는 죄는 어찌해야 하는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더 이상의 죄와 저주는 우리를 지배하지 않는다고 이론적으로는

---

100) Parker, 「존 칼빈의 생애와 업적」, 114.

101) 칼빈은 자신의 글에서 하나님의 뜻과 법을 상호 교차적으로 사용한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곧 율법과 같은 의미로 쓰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법은 의지의 표현 즉 뜻을 드러내는 것이다.

102) Inst, III. 19, 5.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지라도 계속적으로 죄와 실수로 얼룩져있지 않는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칼빈은 바울의 말을 인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위로한다.

신자들은 아직 죄가 근절되었다든지 또는 의가 자기 안에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깨닫지는 못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남아있는 죄를 언제까지나 노여워하시는 듯이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이유는 없다. 은혜로 인하여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의 행위는 율법의 규정에 따라서 판단되어서는 안 된다. 율법 아래 있지 않다고 해서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지녀서는 안 된다.<sup>103)</sup>

이와 같이 칼빈은 은혜 아래 있는 자들에게 있어서 남은 죄를 두려워 말라고 위로한다. 이것을 가리켜 “자유 의 위안(Consolation of Freedom)<sup>104)</sup>”이라고 부를 수 있다. 지금까지 율법과 관련한 두 가지의 내면적 자유를 살펴보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칭의를 가져다주며 칭의에 대한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얻은 그리스도인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순종하는 자유를 갖게 되며 비록 현실적으로 남아있는 죄가 있을지라도 위안을 얻게 된다.

**(2) 외면적 자유 :** 외면적 자유는 영적 삶보다는 지상(육적)의 삶에 속한 것으로 그 자체로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것들과 관련한다.<sup>105)</sup> 외면적 자유에는 섭리와 아디아포라<sup>106)</sup>에서의 자유가 있다. 물론 지성의 자유도 외면적 자유에 포함되지만, 실천적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자유의 실

---

103) Inst, III. 19, 6.

104) 칼빈의 직접 사용한 말은 아니다. 그는 다만 개념적으로 말했고 이 칭호는 본인이 만든 것이다.

105) Inst, II. 4, 6.

106) 아디아포라는 헬라어“에서 나온 말로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가치중립적인 것, 무해 무익한 것 등을 의미하는 말이다. 이 문제는 칼빈 당시 많이 논의된 것이다.

천을 다루는 부분에서 언급하기도 한다.

① 섭리와 자유 : 칼빈은 일상생활에서의 자유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기에 일상생활에서의 자유는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나지 못한다. 따라서 일상적 문제는 완전히 가치중립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서의 섭리에 제약을 받는다고 말한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총은 의지와 율법에 관련하여 내면적 영적 자유의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나타난다. 섭리가 미치는 범위에 대한 칼빈 자신의 말을 들어보자.

하나님의 섭리가 미치는 범위를 보면, 하나님이 유익하리라고 예견하시는 대로 모든 일이 벌어질 뿐만 아니라, 사람의 의지도 같은 목표를 향해 기울어진다. 외부에서 벌어지는 일들의 방향을 숙고해보면, 일이 사람의 판단에 맡겨진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외부적인 일에서도 주께서 사람의 마음까지 지배하신다고 선포하는 많은 증언에 귀를 기울인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결심자체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자극에 좌우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의 마음은 그들 자신의 지배를 받기 보다는 주의 지배를 받는 것이다. 우리는 삶든 좋든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보다도 하나님의 고무적인 활동에 의해서 인도된다는 것을 깨닫지 않을 수 없다. 가장 단순한 일을 판단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많으며 쉬운 일에서조차도 용기가 나지 않는 것에 반해 가장 어려운 일에 부딪쳤을 때 지혜가 생각나며, 결정적인 중대 문제에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용기가 생긴다.<sup>107)</sup>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자율적인 행동보다 앞선다. 이것은 인간의 삶이 결정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섭리를 통해 모든 행동에서 내면적 자유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원리임을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된다. 칼빈은 이것을 다양한 성경구절을 제시하면서 입증한다.<sup>108)</sup> 비록 그리스도인이 아닐지

---

107) Inst, II. 4, 7.

라도 그의 모든 결정과 행위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 결국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문제는 모든 일에 있어서 자신의 자유로운 판단을 갖되, 옳고 그를 구별하며 선을 택하고 악을 버리든지 또는 그가 의지의 자유로운 느낌을 갖되, 선을 좋아하고 추구하며 악을 미워하고 피하든지를 묻는데 있다.<sup>109)</sup>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자유로운 선택과 결심을 할 수 있다. 다만 내면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선을 택할 수 있는 자발적 동기를 잊어서는 안 된다.

② 아디아포라에서의 자유 : 아디아포라와 관련한 자유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다룬 「기독교 강요」 제3권 19장에서의 세 번째에 해당된다.<sup>110)</sup> “아디아포라”는 성경에서 금하거나 명백하게 명하지 않은 것들을 말한다.<sup>111)</sup> 칼빈은 이것들을 가리켜 “무해 무익한 사물들<sup>112)</sup>”이라고 말했다. 칼빈 당시와 로마서의 배경을 이루는 로마 시대에는 이러한 문제들이 중요하게 거론되었다.<sup>113)</sup>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명하셨거나 금한 것이 아닌 것들에 대한 칼빈의 입장은 무엇인가? 라는 의문에 대해서

칼빈은 “그 자체가 무해 무익한 외부적인 사물들에 관해서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종교적 의무에 매여 있지 않고, 때로는 그런 사물을 이용하기도 하며 때로는 이용하지 않는 것도 전혀 무방한 일”<sup>114)</sup>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더글라스(Douglass)가 말한 대로 선하기도 악하기도 않은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목적을 위해 감사함으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sup>115)</sup> 오히려 그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목적을 위

108) 창43:14, 시106:46, 삼하17:14, 왕상 12:10, 14, 수2:9, 신28:65.

109) Inst, II. 4, 8. 이와 같이 섭리와 관련한 인간의 자유의지의 문제는 우리가 결심한 것을 성취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자유로 결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110) Inst, III. 19, 7.

111) 박윤선, 「성경신학」 (서울: 영음사, 1987), 217.

112) Inst, III. 19, 7.

113) Ibid. 그리고 롬14:1-15:13참고.

114) Ibid. III. 19, 7.

해 감사함으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sup>116)</sup> 아디아포라와 관련된 문제에서의 자유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것을 모를 경우 우리의 양심은 결코 평안히 쉴 수 없으며 끊임없이 미신에 사로잡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sup>117)</sup> 칼빈은 예민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심각함 외에 행여 미신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가치중립적인 일들에 있어서 자유롭게 하는 능력을 꼭 알아야 한다고 말한다.

어떤 사람이 목면을 가지고 이불보, 내의, 손수건, 냅킨을 만들 수 있을지 의심하면 나중에는 삼베를 갖다 주어도 어쩔 줄 몰라 하게 되며, 결국은 거친 삼베를 가지고도 걱정을 할 것이다. 또 이런 사람은 냅킨이 없이 저녁을 먹어도 되는가, 손수건이 없이 외출을 해도 되는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도 골머리를 앓게 될 것이다. 좀 맛있는 음식을 마땅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결국에 가서는 검은 빵을 먹든 보통 음식을 먹든 그보다 더 나쁜 음식으로도 자신의 몸을 지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서 불안해 할 것이다. 이런 사람은 길을 걷다가 지푸라기를 밟는 것조차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게 될 것이다.<sup>118)</sup>

이렇게 사사로운 문제들이 신앙과 연루되어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혀서는 안 된다. 이러한 것에 얽매이는 것은 보다 깊은 신앙이 아니라 미신에서 허덕이는 것에 불과하다. 이처럼 자유는 한편으론 불안과 미신적인 것으로부터 떠나게 해줄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탐욕, 사치 및 정욕을 정당화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이웃을 생각하면서 주어진 것들을 사용하도록 권면한다.

하나님의 선물을 자기의 정욕대로 악용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

115) Douglass, 「칼빈, 여성, 자유」, 47.

116) Ibid.

117) Inst, III. 19, 7.

118) Ibid.



이런 욕망을 변호하는 구실로 삼는 자들이나, 자유는 사람들 앞에서 쓰지 않으면 없는 것이라고 하면서, 약한 형제들을 고려하지 않고 자유를 행사하는 자들은 모두 자유를 왜곡되게 해석하는 것이다.<sup>119)</sup>

자유를 남용하는 것을 금하는 것은 “물질이 풍부하고 안락과 쾌락 속에서 뒹굴며, 배불리 먹고, 현재의 쾌락으로부터 머리와 정신이 몽롱하며, 항상 새로운 쾌락을 갈구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합당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sup>120)</sup> 때문이다.

칼빈은 아디아포라에서의 자유에 대해 몇 가지 구체적 제안을 말하는데. 첫째는 제어할 수 없는 욕망을 버리라. 둘째, 무절제한 낭비를 그치라. 셋째, 허영과 교만을 버리라<sup>121)</sup>는 것이다. 칼빈은 맑은 양심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깨끗이 쓸 수 있도록 위의 모든 것들은 버려야 한다고 말한다.<sup>122)</sup> 칼빈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유 법칙은 결국 바울과 같이 어떤 형편에 있더라도 만족할 줄 알며, 낮아질 줄 알고 높아질 줄도 알며, 어떤 형편에 있더라도 배부르거나 풍족하거나 결핍하거나 모든 형편에 대처할 줄 아는 것이다.(빌4:11-12) 이와 같이 칼빈이 말하는 자유는 미신과 불안 그리고 방종과 타락 모두를 경계하는 균형 잡힌 중용(中庸)적 성격을 지닌다.<sup>123)</sup> 또한 건전하지 못한 고행주의와 무책임한 탐닉 모두를 경계한다.<sup>124)</sup> 아디아포라와 관련된 이러한 칼빈의 자유사상은 성경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더욱 확실한 것이 된다.

그는 바울의 주장에 따라 아디아포라에서의 자유를 설득력 있게 개진(開進)한다. 바울은 아디아포라와 관련한 것들을 각자의 양심에 맡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으셨기 때문이다.<sup>125)</sup> 따라서 아디아포라에서

---

119) Inst, III. 19, 9.

120) Ibid.

121) Ibid.

122) Ibid.

123) McKim, 「칼빈 신학의 이해」, 385-391.

124) Ibid. 346.

자유를 향유하는 자들에 대한 비판이 허락되지 않는다. 그 자유의 전제가 하나님이라면 그것은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오히려 자유의 원리를 강하게 드러낸다.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롬14:14)고 가르치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규정하지 않으신 것들은 사람 자신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 선과 악이 좌우된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아디아포라와 관련한 것이고 하나님의 목적과 이웃을 염두 하는 제한을 지닌다.<sup>126)</sup> 따라서 무해무익한 일들로부터의 자유를 근대적 이상이었던 자율주의의 자유 (autonomous freedom)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

다만 아디아포라의 문제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신앙 양심이 생각하는 표준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까지의 기술(記述)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디아포라의 경우 사람에 따라서 문제의 성격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자신이 좋게 여기면 좋은 것이고 자신이 악하게 여기면 악한 것이 된다. 사문이나 사건은 가치중립적(價値中立的)이 되고 그것을 대하거나 행하는 사람의 가치에 따라 그 성격이 결정된다는 것이다.<sup>127)</sup>

여기서 우리는 아디아포라와 관련한 칼빈의 저술위치를 눈 여겨 보아야 한다. 그는 아디아포라의 자유를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와 자발적 순종으로 이를 자유 다음에 위치시킨다. 즉 앞의 두 가지 자유에 근거한 아디아포라의 자유 실현을 의도한 것이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자유를 가진 사람은 아디아포라에 관한 문제들도 그 원칙에 따른다. 즉 “신앙의 자유”를 따른다고 말하는데 그러면 칼빈이 말한 신앙은 무슨 신앙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영광을 논하는 그의 사상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자유를 피력하는 신앙이다. 여기서 우리는 칼빈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신학)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신앙(신학)이라는 것을 알

125) 롬14: 3

126) Inst, III. 19, 8.

127) 박윤선, 「성경신학」, 217ff.

수 있다.<sup>128)</sup> 폭넓게 보면 아디아포라에 관한 것들이 모두 이 원리에 근거해서 실천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 분이 베푸신 모든 것들을 양심의 거리낌이나 마음에 불안 없이 대해야한다. 여기에는 선택의 자유가 있는 모든 의식(Ritual)이 포함된다.<sup>129)</sup> 칼빈은 이러한 의식에 대해서 “우리의 양심이 그 것들을 모두 지켜야한다는 강요를 느낄 필요가 없다.”<sup>130)</sup> 말하는데 이는 의식이 자유를 억제하면 안 된다는 말로 줄일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비록 아디아포라와 관련한 것일지라도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자유의 근본적인 성격은 영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유의 기초에서 살펴보았듯이 모든 자유의 핵심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성격으로 일관되어 있다.<sup>131)</sup> 이상과 같이 칼빈은 자유하지 못하는 신앙에서의 미신적 얽매임이나 무분별한 자유 모두를 경계한다. 위에서 말했듯이 아디아포라와 관련한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전제로 행해야 하며 따라서 절제가 필요하다. 칼빈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구원이라는 구도(求道)속에서 중용(中庸)과 중도(中道)를 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132)</sup> 이러한 확신을 갖고 모든 일에서 진정한 자유를 추구하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평화를 얻을 것이고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너그러우심을 깨닫게 될 것이다.<sup>133)</sup>

### 3) 자유의 목적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내면적, 그리고 외면적 자유를 살펴보았다.

128) 김영한, 「개혁신학이란 무엇인가?」 (서울: 한국기독교학생출판부, 1995), 10-17.

129) 이것을 가리켜 “의식으로부터의 자유”라고 한다. 칼빈은 아마도 로마 가톨릭의 많은 의식을 염두하고 이 말을 했을 것이다.

130) Inst, III. 19, 8.

131) Inst, III. 19, 9.

132) McKim, 「칼빈 신학의 이해」, 398ff.

133) Inst, III. 19, 8.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를 누리며 살도록 부름을 받았다. 우리는 율법의 강요에서 자유롭기에 우리의 일상적인 일에서 찾아오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것에서 자유를 누린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위한 기초이다.<sup>134)</sup> 하기에 칼빈은 왜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이러한 자유를 말하고 있는가? 칼빈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목적하는 바는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지향점은 무엇인가? 자유의 목적이 무엇인가? 에 대해서 살펴보고 삶에서의 자유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초를 마련 해보고자 한다. 자유는 우선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졌다. 칼빈은 자유가 주어진 목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가 자유를 얻은 것은 우리의 약한 이웃을 해하려는 것이 아닌데, 이것은, 사랑은 모든 일에서 우리를 그들(이웃)의 종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우리가 충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한 다음에 사람들과 화목하게 살게 하시려는 것이다.<sup>135)</sup>

자유란 단지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모든 세력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과 이웃에게 사랑으로 봉사하도록 자유를 주셨다. 자유를 얻은 우리는 “모든 사랑을 실천하는데 더욱 예민하게 반응”<sup>136)</sup>해야 한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믿음을 가지고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 비록 자신의 양심에 자유를 누릴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약한 양심을 지닌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된다면 자신이 할 수 있는 많은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파커(Parker)도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하나님 앞에서의 자유이고 동시

---

134) Niesel, 「칼빈의 신학」, 138.

135) Inst, III. 19, 11.

136) Inst, III. 19, 12.

에 영적이지만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면서 칼빈의 주장에 동의한다. 그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사용할 수도 있고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자유롭게 된다고 말하면서, “자유란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는데 사용하도록 주어진 것이며 사랑의 결핍으로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신 형제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sup>137)</sup>고 말한다. 이와 같이 자유는 자기 자신보다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주어진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비록 자신의 이익을 금하지는 않지만 이웃의 행복을 가져오게 해야 한다. 또 자유는 질서를 세우고 유지하기 위해서 주어졌다. 자유를 얻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세상의 질서를 파괴하거나 자의에 따라 질서를 악화시키는데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자의적 자유에 따라 질서를 악화시키는 것은 광신자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sup>138)</sup> 자유가 질서를 위해서 주어졌다는 것과 관련해서 더글라스(Douglass)는 “자유와 질서는 함께 가는 것”이라고 말한다.<sup>139)</sup> 하나님이 세상에 부여한 질서는 지금 타락된 모습으로 나타난다. 칼빈은 사람들 간의 사회적 불평등, 주종관계, 게으름, 성급한 이혼, 해충들의 성가심, 험악한 날씨, 서리, 천둥, 번개, 가뭄 등 자연적, 사회적 모든 모습에서 질서는 상실되었다고 본다.<sup>140)</sup>

하지만 칼빈은 자연적 질서와 사회질서 모두를 중요시했다. 하기에 칼빈은 자연적 질서의 타락은 받아들이더라도, 인간 사회에서 나타나는 질서(하나님과 사람과의 수직적 관계, 사람과 사람사이의 수평적 관계)는 자유를 통해서 세워갈 수 있다고 생각했다.<sup>141)</sup> 여기서 질서를 위한 자유의 역할을 다시 발견하게 되는데 자유는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며, 인

137) Parker, 「존 칼빈의 생애와 업적」, 115.

138) Niesel, 「칼빈의 신학」, 139.

139) Douglass, 「칼빈, 여성, 자유」, 30.

140) Ibid, Douglass는 칼빈의 창세기 설교를 통해 인용한다.

141) Ibid, 47.

간 사회의 질서를 세워가기 위해서 주어졌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궁극적으로 “좀 더 간절히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sup>142)</sup> 좀 더 즉각적이고 제약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것이 자유의 목적이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인간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참여하도록 해준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 선물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할 것을 요구한다.<sup>143)</sup> 자유의 지향(指向)점은 하나님 자신이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 볼 때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자유의 목적은 크게 세 가지라고 볼 수 있다. 첫째는 나 자신이 아닌 하나님과 이웃을 보다 적극적으로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졌으며, 둘째는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자연과 사회 질서 특히 인간과 사회질서를 역동적(力動的)으로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졌고, 셋째는 보다 즉각적이고 제약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졌음이다.

---

142) Ibid., 213.

143) McKim, 「칼빈 신학의 이해」, 408.

### Ⅲ. 웨슬리의 구원론과 자유의지

본 장에서는 웨슬리의 구원의 순서를 살펴보고 자유의지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웨슬리의 신학을 연구함에 있어 근간(根幹)이 되는 것은 그의 설교이다. 왜냐하면 웨슬리는 그 자신의 설교에서 구원론을 피력하고 체계화했기 때문이다. 이 일을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웨슬리의 구원의 순서와 자유의지를 웨슬리 자신의 설교를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 1. 구원의 순서

##### 1) 웨슬리의 인간<sup>144)</sup>이해

웨슬리는 인간을 아담의 타락 전(前)과 후(後)로 나누어 설명한다. 타락 전 최초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形象, the Image of God)대로 지음 받았기에 하늘 아버지께서 완전(完全)하신 것처럼 완전하였다. 웨슬리가 논하는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란 본질(本質)적 형상(the natural image)과 정치(政治)적 형상(the political image), 그리고 도덕(道德)적 형상(the moral image)으로 구분하여 설명한다.

본질적 형상이란 하나님 자신의 불멸성을 본받은 형상으로 인간은 불멸하는 영혼 및 이해(理解)력과 의지(意志)와 감정(感情)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자유를 부여받은 썩지 않는 영적인 존재로 피조(被造) 되었음을 말하며

---

144) 웨슬리는 “종의 영과 양자의 영”(The Spirit of Bondage and of Adoption)이라는 설교에서 인간을 자연적 인간의 상태, 율법아래 있는 인간의 상태, 은혜아래 있는 인간의 상태로 구분한다. 존 웨슬리, 「중생」, 박명수, 박도술 옮김 (서울: 은성출판사, 1998) 87-114.

정치적 형상이란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대변자(代辯者)로서의 형상으로 인간은 이 땅위의 만물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스리는 존재(存在)로 피조 되었음을 말하고

도덕적 형상이란 인간은 무엇보다도 ‘의와 진정한 거룩함’의 형상으로 피조 되었기에 하나님의 계명(誠命)에 전인격적(全人格的) 일치(一致)하므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깨끗하여 죄도 없었고 악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이처럼 완전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인간에 대하여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로우며 완전한 율법(롬 7:12)을 주시고, 이 율법에 대한 충분하고도 완전한 복종(僕從)을 요구하셨다(창 2:16-17)<sup>145)</sup>

“이것들을 모두 항상 그리고 완벽하게 준수하라. 그리하면 너는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sup>146)</sup>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타락하게 되었다<sup>147)</sup>. 하나님께서 엄중한 경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존귀 가운데 거하지를 못했다. “그는 주님이 그에게 먹지 말라고 명하신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sup>148)</sup> 그 금지된 열매를 먹은 그 날 그 시(時)에 바로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고 그 순간 그는 하나님의 도덕적 형상을 잃었으며 부분적으로 본질적 형상도 잃었다<sup>149)</sup>.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다. 그의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떨어져 나왔음을 그의 행동을 통하여 보여 주었다. 그는 동산 가운데 자신을 숨

---

145) 이선희, “기독교대한 감리회 「교리와 장정」 (1997년 개정판) ‘제2장 교리’에 대한 웨슬리 신학적 관점에서의 연구,” 「신학과 현장」 (대전: 목원대학교 출판부, 2000) 참조.

146) 존 웨슬리, 「존 웨슬리 설교선집 I」, 이선희 역 (대전: 도서출판 복음, 2002), 290. 이하

147) 존 웨슬리, “신생,” 「존 웨슬리 설교선집 I」, 378.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어도, 불변하는 존재로 만들어 진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또한 타락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다.

148) Ibid.

149) 존 웨슬리, 「존 웨슬리의 설교」, 김흥기 역 (서울: 땅에쓰신글씨, 2001), 148.



겨서 하나님을 피하고자 시도했다<sup>150</sup>). “그는 마귀의 형상인 교만(驕慢)과 자기(自己) 의지(意志)로 빠져버렸고, 죽어서 썩어지는 짐승의 형상인 감각적 욕망(欲望)과 야망(野望)으로 빠져버렸다”<sup>151</sup>). 그는 거룩하지 않았고, 어리석고 불행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모든 사람은 죽게 되었으며 후손에게는 고통, 질병, 사망에 이르는 운명이 주어졌다. 원초적(原初的) 저주(詛呪)가 내리고(창3:16-19) 하나님의 형상은 왜곡(歪曲)되었다. 그의 이해력은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며(불신앙) 그의 의지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되어 자기 뜻을 추구하며(교만), 감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닌 자기가 기뻐하는 것을 따르게 되었다(육신의 정욕).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서도 자비를 잊지 않으셨다<sup>152</sup>).

## 2) 선행은혜((Preventing Grace)

기독교는 은총(恩寵)의 종교이다. 은총이란 최악의 인간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되는 것으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자발적이며 무조건(無條件)적이며 공로 없이 베풀어주시는 사랑을 뜻한다. 웨슬리에게서의 은혜는 구원의 근원이요, 믿음은 그 조건이다. 구원의 과정에서 은총의 역사는 선행적 은총(예비적 은총)으로부터 시작한다. 선행 은총은 웨슬리의 구원론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그의 신학의 특징 중 하나이

150) 웨슬리는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으로부터 피하려 했던 아담의 행동이 바로 그의 이해력이 손상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본다.

151) 존 웨슬리, “신생,” 「존 웨슬리 설교선집 I」, 378. 웨슬리는 이것을 신생의 근거로 본다..

152) 아담을 부르시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에게서 웨슬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자하심을 본다.

153) 한영태, 「웨슬리의 조직신학」 (서울: 성광문화사, 1993), 102-103. 웨슬리의 은총 관에는 선행적 은총 이외에도 깨닫는 은총(회개의 은총, convincing grace), 칭의의 은총(justifying grace), 성화의 은총(sanctifying grace), 그리고 영화의 은총(glorifying grace)이 있다.

다.<sup>153)</sup>

원죄상태에 있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첫 번째 역사가 바로 선행하시는 은혜이다. “구원이라는 것은 보통 선행하는 은혜라고 부르는 것과 더불어 시작된다.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최초의 소원, 하나님의 뜻에 관하여 알게 하는 빛이 최초로 여명처럼 비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범죄하면서 왔다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최초로 회미하게 그리고 일시적으로 깨닫는 것을 의미한다.

이 모든 것은 생명으로 향하는 어떤 경향성(傾向性), 어느 정도의 구원,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들에 관하여 전혀 감각이 없는 눈멀고 느끼지 못하는 마음으로부터 건짐 받는 것의 시작을 의미한다.”<sup>154)</sup> 웨슬리는 이 선행은혜의 현상을 양심이라고 말하며 양심은 도덕적 기능으로서 모든 인간에게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보편적 현상이기에 이것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라고 본다. “살아 있는 인간으로서 통속적(通俗的)으로 자연적 양심이라고 부르는 것을 전적 결여하고 있는 인간은 하나도 없다. 그러나 이것은 자연적인 것이 아니다. 이것을 더 올바르게는 선행하는 은혜라고 부른다.”<sup>155)</sup>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선행하시는 역사를 느낀다.<sup>156)</sup> 이것은 인간적인 노력의 결과가 아니다.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행동이다<sup>157)</sup>. 즉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의한 것임을 웨슬리는 주장한다. 칭의(稱義) 받기 이전 일종의 회개현상(양심의 현상)<sup>158)</sup>을 웨슬리는

---

154) 존 웨슬리,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름에 관하여,” 「존 웨슬리 설교선집 I」, 247.

155) Ibid, 256.

156) Ibid. 그러므로 어떤 누구도 은혜를 받지 못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그가 받은 은혜를 사용하지 않아서 죄를 짓는 것이다.

157) 이선희, “John Wesley의 선행은행(Preventing Grace)개념에 대한 소고,” 「신학과 현장」(대전: 목원대학교출판부, 2001), 99. 선행은혜는 인간적인 요소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인간 구원 활동이다.

158) 진정한 의미의 회개는 아니다.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한 일시적인 인식일 뿐이다.

선행의 은혜라고 보았다.

이러한 선행의 은혜라고 하는 하나님의 행동에 대해 인간의 반응은 순종 아니면 불순종이다. 순종했을 때는 누구나 선한 욕망을 갖고, 불순종했을 때에는 차이는 있지만 마음에 가책(呵責)을 느낀다. 그러나 선행은혜에 순종하는 것만으로 구원 받지는 못한다. 구원은 바로 이신 칭의의 믿음으로 가능하기 때문이다. 1738년 6월 11일 웨슬리의 ‘믿음에 의한 구원’이라는 설교에서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으로 이교도의 믿음을 예로 든 것은 바로 이러한 맥락이다.

### 3)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Convincing Grace)

웨슬리에게 있어서의 회개는 칭의 전 회개와, 칭의 후 회개로 나누었는데, 칭의 전 회개가 죄책이라든가 정죄라든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의식에서 비롯된 회개라면, 칭의 후 회개는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는 깨달음으로 우리 마음 속에 아직도 남아 있는 죄, 곧 신자의 무능과 내적 부패성, 다시 말하면 악의 성향, 타락하기 쉬운 마음, 성령에 거슬리는 육의 경향성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과 또한 우리 생활에 남아 있는 죄, 곧 우리의 말과 행위에 아직도 고착(固着)되어 있는 죄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에 대한 회개이다. 곧 칭의 후의 회개는 온전한 성화(성결)를 얻기 위한 회개이다.<sup>159)</sup>

선행하는 은혜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회개의 은혜를 허락하신다. “구원은 성경에서 보통회개라고 부르는 회개시키는 은혜에 의하여 계속 진행된다. 이것은 보다 더 큰 정도의 자아인식을 초래하여 둘 같은 마음으로 부터 한 걸음 더 건짐 받음을 초래한다.”<sup>160)</sup> 웨슬리는 “하나님 나라로 가는

---

159) John Wesley, “The Scripture Way of Salvation”(1764), *Works*, Vol. VI, 50; 조종남, 「요한 웨슬레 설교선집」 (서울: 도서출판 청과, 1994), 175-176.

160) 존 웨슬리,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름에 관하여,” 「존 웨슬리 설교선집 I」, 248.

길”이라는 설교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하라고 외친다. 곧 우리 자신을 아는 것이요 자기 인식(self-knowledge)이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전적부패요, 전적무능인 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다. 그것은 죄에 대한 깨달음이다. “너는 모든 능력에 있어서 부패했고, 네 영혼의 모든 기능에 있어서 부패했으며, 이 모든 것들의 개개마다에 있어서 전적으로 부패했고 모든 기초들이 다 결길로 나갔다고 하는 사실을 알라”<sup>161</sup>).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는가? 라는 질문에 웨슬리는 없다고 답한다. 마음이 바뀌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다. 왜냐하면 나무가 나쁜 동안에는 선한 열매를 낼 수 없기 때문이다. 칭의 전 모든 인간은 선행 할 수 없다는 것이 웨슬리의 확고한 신념(信念)이다.

인간은 완전히 무능하며 자신이 무능한 존재임을 깨닫는 것이 바로 회개의 내용이다. 웨슬리는 구원의 순서에 있어서 회개는 믿음에 앞서 있어야 이신 칭의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자기인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웨슬리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된다고 보았다. 즉 율법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며, 인간이 율법을 지킬 때 하나님은 약속하신 복을 주신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지 못할 때는 정죄 하시고 처벌하신다. 그런데 웨슬리는 원죄 하에서의 인간은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율법에 대한 완벽한 순종은 행위 계약 안에서 가능하다고 보았고 이러한 행위계약은 아담의 타락으로 파기되었다. 결국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하나 하나님께 일치할 수 없는 죄인임을 인식할 뿐이기 때문이다.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닫게 된 인간은 이제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으로 떨게 된다. “자책하며 스스로 자신을 정죄하며,

---

160) Ibid.,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 200. 웨슬리는 미국 선교사 실패 후 원죄개념을 체험적으로 인식한다.

변명할 입(말)이 없으며, 부끄러워서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 볼 수 없으며, 너의 위에 임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며, 너의 머리 위에 걸려 있는 하나님의 저주를 두려워하며”<sup>162)</sup>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 인간은 이제 그 모든 죄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생각으로 하나님께만 기대를 걸게 된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웨슬리는 회개은혜라고 보았다. 중생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에게 웨슬리는 밴드(Band)규칙을 적용한다. 그 규칙은 악을 버리고, 힘써 선을 행하며, 은혜의 수단을 힘써 사용하라는 내용으로 되어있다.

이 규칙은 웨슬리가 중생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든 규칙인바, 그의 의도는 철저한 회개에 있다. 즉 악을 행하는 일을 삼가고, 선한 행동을 지속적으로 행하며, 은혜의 수단을 힘써 사용하는 이유는 칭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철저한 회개를 위한 것이다. “거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설교에서도 힘써 악을 버리며, 힘써 선을 행하는 부류의 사람들을 웨슬리는 묘사한다. 그러나 웨슬리에 의하면 이들은 회개은혜를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이들은 힘써 선행을 추구하므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착각 속에 있기 때문이다. 힘써 악을 버리고 선을 추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착각 속에 있는 사람들 즉, 진정한 회개는 이신 칭의 이전, 자신의 모습을 ‘거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고백하고 있다.<sup>163)</sup>

#### 4) 칭의의 은혜(Justifying grace)

회개은혜에 의해 하나님께만 기대를 걸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칭의

---

162) Ibid.,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 206.

163) Ibid., “거의 그리스도인,” 274. 그러나 나의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에게 증거 하거니와 이렇게 하는 동안 내내 나는 거의 그리스도인에 지나지 않았다.

의 은혜를 허락하신다. “그 후에 우리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본래적인 구원을 체험한다. 이 구원에서 우리는 은혜를 통하여 믿음에 의한 구원을 받는다. 칭의에 의하여 우리는 죄책으로부터 구원을 받으며, 그리하여 하나님의 총애로 회복된다.”<sup>164)</sup>

웨슬리는 “믿음에 의한 칭의”에서 칭의의 일반적 토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역설한다. 우리 모두의 아버지인 아담의 범죄 때문에 모두 ‘진노의 자녀’가 되었으나 인류의 대변자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를 누그러뜨리시고 새 언약을 주셨다는 것이다. 그러면 칭의 받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칭의의 대상은 경건치 않은 자들이다. 의로운 자들은 회개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용서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칭의 받기 전에는 선한 것, 진정으로 덕스럽고 거룩한 것을 행한 것이 없고, 오히려 악한 것만을 지속적으로 행한 자들이다.”<sup>165)</sup> 칭의의 방법은 믿음이다. 웨슬리는 믿음이 칭의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단언한다. 이때의 믿음은 “하나님이 세상을 자신과 화해시키면서 그리스도 안에 계셨다는 사실에 대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증거 또는 확신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죄들을 위하여 죽으셨으며, 그가 바로 나를 사랑하셨으며, 그 자신을 나를 위하여 내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확실한 신뢰와 확신이다.”<sup>166)</sup> 웨슬리는 하나님께서 칭의의 조건을 이렇게 정하신 이유는 인간의 교만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본다.

웨슬리는 “믿음에 의한 구원”에서 칭의의 믿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구원받는 믿음을 설명하기에 앞서 칭의 받지 못하는 믿음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그 첫째가 바로 ‘이교도의 믿음’이다. 이교도의 믿음은 이성종교(理性宗教)와 다르지 않다. 즉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과 이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분이라는 것과, 동료 피조물들에게 도덕적

164) Ibid.,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름에 관하여,” 248.

165) Ibid., “믿음에 의한 칭의,” 327.

166) Ibid., 332.

인 선과 정의와 자비와 진실을 정성껏 행하는 것이라고 믿는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구원이라는 주장이다. 웨슬리는 이를 명백히 거부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도덕적 의무는 인간이 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공로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며 둘째는 ‘마귀의 믿음’도 이신 칭의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니다. 마귀의 믿음은 이성종교보다 앞서 있으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이 세상의 구원자라는 것을 알고 있으나 마귀는 마지막심판 때 저주 아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셋째로 이신 칭의의 믿음은 예수께서 지상에 계시는 동안 제자들이 가졌던 믿음과 구별된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모든 능력 있는 일들을 행하였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구원받는 진정한 의미의 믿음은 무엇인가? (1)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내가 전적으로 의존할 때 정죄가 말소되고 영벌이 면제된다. (2) 이 믿음은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의 공로를 신뢰하는 것이다. 이 때 그리스도의 의가 내게 전가됨으로 그 의가 내게 있는 것으로 인정하신다. (3) 나를 위해 내어 주신 바 되었고 우리 안에 살아 계신 주님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이다. (4) 하나님이 나와 화해하시고 총애의 대상으로 삼으셨다는 확신이 주어진다. (5) 그 결과로 내가 그리스도께 굳게 결합된 상태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믿음인 것이다.<sup>167)</sup>

이 믿음을 통한 구원은 ① 현재적 구원이다. 이는 영국교회의 칭의관을 비판한 것으로 본격적인 구원의 길에 들어왔음을 의미한다.<sup>168)</sup> ② 모든 죄로부터의 해방이다.” 즉, 원죄, 자 범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육신의 죄, 영의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것이다.”<sup>169)</sup> ③ 자 범죄의 죄책으로부터의 해방

167) Ibid., “믿음에 의한 구원,” 350.

168) 영국교회의 칭의관에 의하면 사람은 죽을 때 칭의를 받고 구원을 받는다.

이를 “Holy-Living-Holy-dying-Tradition”이라 한다.

169) 존 웨슬리, “믿음에 의한 구원,” 「존 웨슬리 설교선집 I」, 352.

이다. ④ 따라서 하나님의 저주에 대한 두려움에서 해방되어, 이제는 오히려 하나님과 화해된 자녀로서(롬 5:1) 하나님의 영광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는 소망을 갖게 되었다(롬 5:2). ⑤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짓지 않는다. 즉, 어떤 습관적인 죄로 인하여 죄짓는 일을 하지 않으며 의도적인 죄로 인하여 범죄 하지 않으며 어떤 죄 된 욕망으로 인하여 죄짓지 않는다.<sup>170)</sup> 칭의는 바로 성화의 출발이다.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에게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 웨슬리는 “신생의 표징들”에서 이를 설명한다. 신생의 첫 번째 표징은 믿음<sup>171)</sup>이다. 이 믿음의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포기해야 한다. 원죄상태에 대한 진정한 의식이 선행한다. 즉 (자신을 포기하고) 오로지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이 온다는 사실에 기대를 걸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의 내용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비에 대하여 진실로 신뢰하고 확신하는”<sup>172)</sup> 상태를 이루신다. 이 믿음의 직접적인 열매는 “죄를 이기는 능력”(power over sin)<sup>173)</sup>과 평화(peace)<sup>174)</sup>이다. 두 번째 표징은 소망(素望)이다. 믿음으로 죄책의 용서와 영벌의 면제를 받은 영혼은 필연적으로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갖는다. 소망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자녀면 상속자로서 그것도 하나님의 상속자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동일한 상속자”<sup>175)</sup>라고 하는 확신이다.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일편단심(一片丹心) 거룩한 진실성 안에서 자기를 성결케 하며 영생을 향하여 전진한다. 이 소망은 온갖 시험과 핍박 속에서도 영광을 바라보는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지금은 때를 따라 필요한 경우에 당분간 여러 가지 유혹으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으나 그럼에도

170) Ibid, 356.

171) 이 믿음은 사변적인 믿음이 아니며 단순한 지적 동의가 아니다.

172) 존 웨슬리, “신생의 표징들,” 「존 웨슬리 설교선집 I」, 403.

173) 이 믿음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는 것으로 모든 종류의 외적죄와 내적죄를 이기는 능력이다.

174) 이신칭의로 우리의 모든 죄들이 도말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175) 존 웨슬리, “신생의 표징들,” 「존 웨슬리 설교선집 I」, 402.



불구하고 너희는 이 소망 안에서 크게 즐거워하라.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시는 그 때에는 오히려 칭찬과 존귀와 영광이 될 것이다”<sup>176)</sup> 신생의 세 번째 표징은 사랑이다. 이 사랑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나타나는 그의 마음에 부여된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기에 거듭난 사람은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쁨과 만족이 그의 영혼 안에 있다. 이 사랑은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사랑한다. 그는 한 영이듯이 주와 합하여졌다. 그 분은 만인 가운데 으뜸이요, 온전히 사랑스러운 분으로 선택했다.”<sup>177)</sup> 그리고 이 사랑은 필연적으로 이웃사랑으로 나타난다. “이 사랑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영혼을 사랑하듯이 모든 사람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다.”<sup>178)</sup> 이러한 신생의 표징들이 없다면 세례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도 거듭난 것이 아니다.

웨슬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의 특권”에서 중생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교정하고자 한다. 이미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누구나 죄를 짓지 않는다.’(요일3:9)

그 이유는 우리의 존재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감지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감지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 또는 하나님의 숨결이 새로 태어난 영혼에 즉시로 주입”<sup>179)</sup>되기 때문이다. 중생한 자는 “이 숨을 지속적으로 믿음으로, 사랑과 기도와 찬양과 감사로 돌려드려진다.”<sup>180)</sup> “이 새로운 영적 호흡으로써 영적 생명은 유지될 뿐만 아니라 매일 매일 성장한다. 그리고 영적으로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분별할 수 있다.”<sup>181)</sup> 이렇게 자신을 지키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 “이 씨가 그

---

176) Ibid, 415.

177) Ibid, 419.

178) Ibid, 420.

179) Ibid.,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의 위대한 특권,” 438.

180) Ibid.

181) Ibid.

의 안에 계속 있는 한 그는 죄를 지을 수도 없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이기 때문이다.”<sup>182)</sup>

그러나 만약 그가 믿음 안에 거하지 못한다면 그는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죄를 범할 수 있다. 은혜로부터 죄로 발전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속에는 사랑하며 이기는 믿음의 신적인 씨앗이 남아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자신을 지키기에’ 죄를 범할 수 없다. (2) 유혹이 일어난다. 이 유혹이 세상이나 육신, 마귀로부터인가는 중요하지 않다. (3) 하나님의 영이 죄가 가까이 있다고 그에게 경고하시며 더 많이 깨어 기도하라고 명하신다. (4) 그는 어느 정도 그 유혹에 길을 내준다. 그러면 그 유혹은 그를 더 즐겁게 하기 시작한다. (5) 성령이 슬퍼하신다. 그의 믿음은 약해진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의 사랑은 식어간다. (6) 성령이 그를 더 신랄하게 책망하신다. 그리고 ‘이것이 길이다. 너는 이 길로 걸어가라’고 말씀하신다. (7) 그는 하나님의 고통스러워하시는 음성에 등을 돌리고, 유혹자의 달콤한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 (8) 악한 욕망이 그의 영혼 안에 시작되며 퍼져나간다. 그러다가 결국 믿음과 사랑이 사라져 버린다. (9) 이제 그는 외적 죄를 지을 수 있다. 주님의 세력이 그를 떠났기 때문이다.<sup>183)</sup>

## 5) 성화시키는 은혜(sanctifying grace)

성화에 대한 웨슬리의 관심은 그가 하나님께 그의 일생을 헌신하기로 결심한 그의 나이 23세가 되던 1725년부터 시작되었다.<sup>184)</sup> 그 후 웨슬리는

---

182) Ibid. 440.

183) Ibid., 447.

184) 이성주, 「웨슬리 신학」(서울: 도서출판 성지원, 1987), 273. 이성주는 웨슬리의 성화론이 안정된 목표와 방법론을 찾은 것은 그의 울더스게잇 체험이 있던 1738년 이후로 보아야 된다고 주장한다.

그의 성화론 혹은 완전 론은 1777년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인 질문을 거듭하며 여러 차례 수정 과 확대를 통해서 완숙된 형태로 발전시켜 나갔으나 주요 골자는 변함이 없었다. 그래서 웨슬리는 1777년에 출판된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대한 평이한 해설」에서 1725년의 옥스퍼드 시절을 회고함으로써 서문을 시작할 뿐만 아니라, “이것은 내가 1725년부터 1765년까지 40년간을 믿고 가르친 유일하고 전체적인 완전 이다”라고 단언하고 있다.<sup>185)</sup>

그런데 웨슬리는 “성화(聖化)”라는 용어를 “성결(聖潔)”, “그리스도인의 완전”, “완전한 사랑”이라는 말과 유사한 개념(概念) 또는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특히 부흥초기에는 성화를 “그리스도인의 완전”과 동일한 개념으로 흔히 사용하였고, 마침내는 신생(新生) 다음에 오는 이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성화라는 말 앞에 ‘온전한’이라는 수식어를 덧붙여서 “온전한 성화”라는 용어로 사용하였다.<sup>186)</sup>

중생하고 성화의 길을 가는 사람은 죄의 지배로부터 구원받았으므로 죄의 유혹을 전혀 받지 않는 것일까? 실제로 모라비아교도들은 이러한 입장을 받아들였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본성의 부패가 더 이상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웨슬리는 이 주장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 “믿는 자 안에 있는 죄에 관하여”라는 설교에서는 모라비아교도들의 주장을 논박한다. 중생한 자 안에도 본성의 부패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본다.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안에 지배하지는 못하지만(not reign) 여전히 남아 있다(still remain)”<sup>187)</sup> 인간은 죄의 세력으로부터는 건짐 받았으나 죄의 존재로부터는 건짐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sup>188)</sup> 중생 후에도 죄의 유혹을 받는다는 것이 웨슬리의 설명이다. 다만 중생 전에는 죄짓게 하는 힘에 노예상

---

185) John Wesley, “Plain Account of Chrjstian Perfection,” *Works*, Vol. XI. (1777), 444.

186) Randy L. Maddox, *Responsible Grace: John Wesley’s Practical Theology*, 176.

187) 존 웨슬리, “믿는 자 안에 있는 죄에 관하여,” 「존 웨슬리 설교선집 I」, 457.

188) 이신칭의로 죄의 존재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태로 잡혀있는 상태였으나 중생 후에는 죄짓게 하는 힘으로부터 벗어나서 대치하고 대항하는 상태가 된 것이다. 웨슬리는 성경을 통해 이를 입증한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슬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슬리나니 이들은 서로 대적한다. 중생한 자들 안에도 두 원리가 서로 대립하고 있다는 사실을 단언하는 것이다.”<sup>189)</sup> 모라비아교도들의 주장 - 육신적인 마음이 없고 믿음을 버리고 다시 타락하려는 기질이 없다 - 이는 성경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중생한 자들의 경험에도 어긋난다.<sup>190)</sup> 그들의 잘못된 주장은 중생한 사람들의 성화를 불가능하게 할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펴본바 웨슬리는 중생한 자 안에도 여전히 본성의 부패가 남아 있다고 주장했는데 그의 설교 “그리스도의 오신 목적”에서 우리는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하나님의 아들은 인간이 이생에 남아 있는 동안에는 인간 안에 있는 마귀의 일들을 전체적으로 다 파멸하지는 않는다.”<sup>191)</sup> “그는 영혼이 육체 안에 거하기 때문에 이해력의 모든 연약함을 파멸하지 않으신다.”<sup>192)</sup> 그 이유는 “우리에게서 교만해지게 하는 모든 유혹을 제거하고 독립하고자 하는 생각을 모두 제거하기 위함이다”<sup>193)</sup> 그래서 중생한 사람도 믿음이 약해지고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하면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류와 무지는 인간에게 불가피한 것이다. 웨슬리는 중생한 자의 영혼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어느 정도의 부패성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본 것이다.

웨슬리는 중생하여 성화의 길을 가는 사람도 그의 영혼 안에 죄가 지배하지는 않지만 남아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중생한 사람이 은혜 안에 거하기를 태만히 하여 믿음이 약해졌을 때 이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짓게 된다) 중생 후 성화의 과정에서 회개와 믿음이 필수적이라고 말한다. 이를

---

189) 존 웨슬리, “믿는 자 안에 있는 죄에 관하여,” 460.

190) Ibid., 463.

191) Ibid., “그리스도의 오신 목적,” 154.

192) Ibid.

193) Ibid.

입증하는 설교가 바로 “믿는 자들의 회개”이다. 중생하여 성화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 회개와 믿음은 꼭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회개와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경주를 달릴 수 없다.” 이러한 회개와 믿음은 우리가 계속 은혜 안에 거하며 성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수적인 것이다.<sup>194)</sup> 그러면 이신 칭의 받기 전의 회개와 최초의 회개와는 어떻게 다른가? 칭의 전의 회개는 “죄로부터 거룩으로의 내적 변화, 마음의 변화”<sup>195)</sup>를 의미한다. 그러나 칭의 후의 단계는 “우리 자신이 죄인이요 죄책을 가졌으며 여기서 자신의 힘으로는 헤어 나올 수 없는 무능한 죄인인 것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sup>196)</sup>

어느 정도 부패한 본성이 죄짓게 하는 힘에 유혹 당하여 중생한 사람도 죄를 범하게 되는데 교만과 자기 의지와 세상 사랑의 형태로 나타난다.<sup>197)</sup> 이로부터 안목의 정욕이 되살아나며<sup>198)</sup> 비방을 두려워하는 것과 악한 치욕감이라는 이생의 자랑이 되살아난다.<sup>199)</sup> 이 이생의 자랑으로부터 질투, 분개심, 복수심과 탐욕이 나온다.<sup>200)</sup> 그리고 이것들로부터 외적인 죄들이 나온다.<sup>201)</sup> 중생한 자의 회개라는 것은 먼저 이러한 중생한 자의 내적 및 외적 죄들을 철저히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이다. 이것이 중생한 자의 회개의 첫 단계이다. 그 다음 중생한 사람도 내적 및 외적 죄들에 대하여 자신이 완전히 무능하다는 것을 완전히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 회개의 두 번째 단계이다. 이는 “칭의 받기 전과 마찬가지로 지금도 그들 자신으로부터는 선한 생각을 하나도 생각해 낼 수 없고, 선한 의욕 한 가지도 형성할 수 없으며, 선한 말 한 가지도 말할 수 없고, 선한 행위 하나도 행할 수 없다.”<sup>202)</sup>

---

194) Ibid., 482.

195) Ibid., 483.

196) Ibid.

197) Ibid., 485.

198) Ibid., 487. 이 안목의 정욕은 영혼을 공격할 것이다.

199) Ibid., 488.

200) Ibid., 489-490.

201) Ibid., 492-493.

중생전의 회개와 달리 자신의 죄로 인하여 저주가 자기 위에 임하지 않음을 확신한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대언자로 가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령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일지라도, 그리고 외적 죄와 내적 죄를 모두 저항하여 정복할지라도, 그리고 매일같이 우리의 적들을 약화시킬 수는 있을 지라도, 우리가 그들을 내어 쫓을 수는 없다. 근신하고 기도하고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손을 완전히 깨끗하게 할 수가 없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깨끗해져라’ 하고 두 번째 말씀하시기를 기뻐하실 때 오로지 그 때에 그 악한 뿌리, 즉 육적인 마음은 파괴된다.”<sup>203)</sup> 중생한 사람이 이렇게 회개했으면 그는 ‘복음을 믿으라.’는 부르심을 받는다.<sup>204)</sup> 이때의 믿음은 칭의 때와는 달리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믿는 것이다. 일부 학자들은 성화가 믿음이 아닌 행동으로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칭의(의인화)는 오직 믿음으로만(sola fide) 가능하고 성화는 믿음과 선행으로 가능하다”<sup>205)</sup>

즉 “성화는 믿음으로 시작하지만, 성화의 완성에는 인간의 참여, 곧 선행이 있어야 하며, 성화의 완성인 구원은 믿음과 선행으로 성취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웨슬리의 성화론을 곡해할 수 있게 한다. 왜냐하면 마치 성화를 받기 위한 조건이 믿음과 선행 두 가지인 것처럼 오해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나 웨슬리는 선행(경건한 모든 일들과 자비에 속한 모든 일들) 및 회개와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온전한 성화(또는 full salvation)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나, 그러한 것들은 조건부적이거나 부차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오로지 믿음만이 성화의 유일한 조건이라고 말하

---

202) Ibid., 499.

203) Ibid., 501.

204) Ibid., 502.

205) 김흥기, 「존 웨슬리의 구원론」, 164-165.

고 있기 때문이다.<sup>206)</sup>

중생한 자가 회개와 더불어 갖는 믿음은 다음과 같다. (1) 믿는 자를 모든 죄로부터 건져내어 완전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이다.<sup>207)</sup> (2)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이루실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다.<sup>208)</sup> (3) 하나님은 이 약속을 기꺼이 이루고자 하신다는 것 즉 오늘 이루고자 하신다는 것을 믿고 기대하는 것이다.<sup>209)</sup>

웨슬리는 종교개혁자인 루터에게 볼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주장한다. 웨슬리가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란 ‘완전한 사랑’, ‘완전한 거룩’, ‘완전한 성화’를 의미하나,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비판함으로 “그리스도인의 완전”에서 그 의미를 설명하고자 시도하며, 먼저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웨슬리는 말한다.

그리스도인의 완전은 (1) 세상에 관한 지식이나 하나님에 관한 지식에 있어서 완전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2) 인간사에 있어서나 성경에 대하여도 실수와 오류로부터 자유로울 만큼 완전하지 않다. “성경에 대해 아무리 실수를 피하고자 조심해도, 사람 중 가장 우수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실수하기 쉬우며 실제로 매일같이 실수한다.”<sup>210)</sup> (3) 인간적 한계점들로부터 자유로울 정도로 완전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인간적 한계점들이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성’이 아니라 이해력이 약하고 느린 것 등의 육체적 한계점 등을 의미한다. (4)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는 유혹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정도로 완전하다는 뜻이 아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는 유혹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그러한 완전은 이 세상의 삶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sup>211)</sup>

---

206) John Wesley, “The Scripture Way of Salvation,” *Works*, VI. (1964), 51.

207) 존 웨슬리, “믿는 자들의 회개,” 「존 웨슬리 설교선집 I」, 503.

208) Ibid.

209) Ibid., 505.

210) Ibid., “그리스도인의 완전,” 521.

211) Ibid., 524.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대한 오해를 풀 연후에 웨슬리는 그리스도인의 완전이 의미하는 바를 다음과 같은 명제로 이 개념을 표현하며 설명한다. “그리스도인은 죄짓지 않을 그 만큼 완전하다.(A Christian is so far perfect as not to commit sin).”<sup>212)</sup>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1) “악한 또는 죄된 생각들로부터 해방된 자들의 특권이다.”<sup>213)</sup> 즉, 주님이 악한 생각이나 죄된 생각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진정한 그리스도인도 악한 생각이나 죄된 생각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다. (2) “그리스도인들은 실제 악한 생각들로부터 해방된 것과 같이 악한 기질들로부터도 해방되었다.”<sup>214)</sup> “주님은 모든 죄된 기질로부터 자유로우셨다. 그러므로 그의 제자 된 진정한 모든 그리스도인도 그와 같다.”<sup>215)</sup> (3) 그리스도인의 완전은 지금 이 세상에서 이루어진다.<sup>216)</sup>

결론적으로 웨슬리의 그리스도인의 완전개념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지금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의미와 악한 생각들과 악한 기질들로부터 해방되었다는 의미에서 완전하다는 의미이다.”<sup>217)</sup> 웨슬리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란 우리의 영혼이 완전한 사랑, 곧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랑으로 채워지고 지배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다.<sup>218)</sup>

웨슬리의 ‘그리스도인의 완전’<sup>219)</sup>개념은 철학적 혹은 인간학적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신학적 개념이다.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는

212) Ibid., 549.

213) Ibid., 550.

214) Ibid., 551-552.

215) Ibid., 553.

216) Ibid., 555.

217) Ibid., 556.

218) 김기련, 「기독교 영성사」 (대전: 도서출판 복음, 2003), 264.

219) 이선희, “기독교대한 감리회 [교리와 장정] (1997년 개정판) 제2장 교리에 대한 웨슬리 신학적 관점에서의 연구,” (대전: 목원대학교출판부, 2000), 82. 이 완전의 필연적인 열매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다. 이 완전은 도달하여 정지하는 것이 아니라 더 향상하며, 전 보다 빨리 은혜에 자라며 잃어질 수도 있다.



것은 인간을 완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이다. “나의 발자취를 따라 걸을 때, 내가 한 약속, ‘완전한 자는 누구나 그의 선생과 같이 될 것이다’라는 나의 약속을 내가 이를 것임을 의심하지 말라”<sup>220)</sup>. 우리가 하나님의 행동에 관한 이 개념을 올바르게 이해했다면, 인간에게 이러한 완전은 불가능<sup>221)</sup>하다는 거부가 아니라, 오히려 인간을 온전히 거룩하게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여 회개와 믿음으로써 기대를 건다.

## 2. 웨슬리의 선행은총과 자유의지의 관계

웨슬리는 그의 구원론을 예정에서 출발하지 않고 선행적 은총에서 시작한다. 이는 믿음보다 앞서는 은총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미처 은혜임을 깨닫기도 전에 앞서 존재하는 은혜요 미처 알아채기도 전에 우리의 삶 속에서 이미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주도권을 갖고 먼저 찾아오시는 것이다.<sup>222)</sup>

성경에서 그 예를 찾으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피하여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는 타락한 죄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과 같은 은총을 말한다. 또한 모세가 애굽 십장을 때려 죽이고 도망쳐서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 무리를 칠 때 타지 아니하는 불꽃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고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선행적 은총이다.<sup>223)</sup>

220) 존 웨슬리, “그리스도인의 완전,” 「존 웨슬리 설교선집 I」, 552.

221) 가르침이 너무 어려워 감당할 수 없다는 것과 가르침이 너무 높아서 도달할 수 없다고 반대의견을 제시한다.

222) 김흥기, 「구원의 완성을 향한 순례」 (서울: 기독교대한감리회 홍보출판국, 2000), 14.

223) Ibid., 16.

웨슬리는 어거스틴의 원죄설을 받아들인 루터와 칼빈의 개신교 전통을 따라서 인간의 타락과 원죄를 강조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 형상의 부분적 회복의 가능성을 믿는다. 다시 말해서 회개의 신앙 이전에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주어지는 은총, 곧, 선행적 은총을 믿는다. 웨슬리는 “성서적 구원의 길”이라는 설교에서 선행은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가 구원을 넓은 의미로 본다면, 이는 우리가 종종 말하는 “생래의 양심”(natural conscience), 더 적당하게 표현해서 “선행적 은총”(preventing grace)에 의해서 우리 영혼 속에 역사된 것 전부를 포함한 것입니다. 이 선행적 은총이라 함은 하늘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역사 -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곧 우리가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점점 증가하는 그 마음),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 모든 사람을 교화 하시는 빛, 즉 사람에게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 하도록” 지시하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선행적 은총이란 성령께서 때때로 모든 사람에게 역사하시어 깨닫게 하시는 것 전부를 말합니다. 이런 것을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은 틀림 없으나, 이 성령의 역사를 대부분의 사람들은 최대한 즉시 질식시켜 버리거나 얼마 후에는 이 역사를 잊어버리든지 또는 부정합니다.<sup>224)</sup>

그리고 1785년 9월 10일에 빌립보서 2장 12-13절(“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을 주제로 한 설교에서도 선행은총을 설명한다.

구원은 일상적으로 ‘선행적 은총’(preventing grace)이라는 용어로 시작합니다. 이 선행적 은총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최소의 소원이고, 그의 의지와 연관된 빛의 여명이며, 하나님에 반대 하였던 죄에 대해 미약하나마 최초의 순간적인 죄의 자각을 함축합니다. 이

---

224) John Wesley, “The Scripture Way Salvation,” 373.

모든 것은 생명, 구원의 어떤 단계, 눈먼 상태, 무감각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과 그의 사역에 대해 완전한 불확실성으로부터 자유의 시작으로 나아가려는 어떤 성향을 의미합니다. 구원은 ‘깨닫는 은총’(convincing grace)에 의해 수행되며 이 깨닫는 은총은 일상적으로 성서에서 ‘회개’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이른바 굳은 마음이라고 하는데서 더 많은 구원이 나타나며, 자아인식에도 보다 큰 수단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기독교 고유의 구원을 경험하는데, 곧 ‘은총을 통하여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는 것입니다.<sup>225)</sup>

이처럼 웨슬리의 설교들을 통해서 볼 때 그리스도의 구속 사업은 영혼에 있어서 은총의 첫 여명(黎明), 곧 웨슬리가 선행적 은총이라고 말함에서 시작된다. 콜린 윌리엄스는 웨슬리의 선행은총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웨슬리는 이 두 가지, 인간의 신에게로 지향할 수 없는 불가능성과 하나님께 응답하는 자유를 어떤 형태의 펠라기안주의(pelagianism)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의 원죄와 선행적 은총에 대한 두 교리로서 조화를 이룬다. 원죄로 인하여 자연적 인간은 “하나님께 죽었고”, 하나님께 나아가거나 그에게 응답할 수 없다. 그는 선행적 은총을 통하여 응답 또는 반항할 능력을 갖는다. 선행적 은총은 우리 속에 신앙을 용납 또는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을 창조한다.<sup>226)</sup>

## 1) 선행적 은총으로서의 양심

웨슬리가 양심을 바라보는 입장은 종교 개혁자보다 더 긍정적이었다. 루터에게 양심은 유죄한 것이지 옳은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을 고발하는데 법과 손을 잡는 것이고 은혜의 역할은 양심의 유죄선언에서 해방시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칭의의 역사 안에서 양심의 유죄판결의 소리를 파기하는 것이다.

225) Wesley, "On Working Out Our Own Salvation," 488.

226) Colin W. Williams, *John Wesley's Theology Today*, 이계준 역 (서울: 전광사, 1993), 43.

웨슬리는 양심이 더 긍정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의 설교 “양심에 관하여”에서 양심은 선행적 은총임을 말한다.

세상에 태어난 어느 사람에게나 양심을 찾아볼 수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있을까? 또한 그것은 이해력이 생기고 이성의 작용이 시작되자 곧 나타나지 않는가?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제 아무리 선악을 감지하는 여건이 다양하고 불완전하다손 치더라도 선악의 다른 점을 인식하기 시작하지 않는가? 이 능력은 통상적으로 자연적 양심이라는 뜻으로 이해되는 듯싶다. 이 표현은 왕왕 유명하나 엄격한 의미에서는 정당하지 않은 저자들에게서 발견되는 것이다. 그러나 비록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서 발견되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자연적이라고 하겠지만, 정당하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모든 자연적 유산위에 주어진 그의 초자연적 선물인 것이다. 아니 ‘이 세계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밝혀주는 참 빛’은 자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sup>227)</sup>

성령의 선행적 은총은 이성의 눈이 열리도록 양심과 율법으로 역사한다. 웨슬리는 이렇게 해석한다. “양심이 자리를 잡으면 바위라도 산산조각으로 부수는 것이 율법이다.”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의 기능인데 이것은 율법만으로도, 양심만으로도 가능하지 않고 성령의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계시의 역사로 율법에 비추어 양심이 증거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다.<sup>228)</sup>

성령의 일반 계시적 사역으로 양심과 율법이 만나면 인간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된다. 양심을 세 가지로 분류해 볼 때, 하나님과 열려 있는 사람은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을 때 탄식하며 통곡하는 사람은 부드러운 양심을 가진 사람이며, 성령의 경고와 채찍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가책도 받지 않는 사람은 굳은 양심이라고 구분한다.

---

227) John Wesley, “On Conscience,” *Works*, VII, 187-188.

228) 김홍기, 「존 웨슬리 구원론」, 110.

그렇다면 웨슬리는 ‘양심’을 통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인가? 웨슬리는 그의 설교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누구나 다 단순성과 경건한 진실성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양심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에 충분히 설득되어야 하며 다음에는 자기 자신의 가장 좋은 견해에 따라 행동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나 형제의 양심을 지배하라는 권리를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 하나님께 책임을 져야 되듯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관장해야 합니다.<sup>229)</sup>

이와 같이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인간은 책임적이다.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도록 자연적 자유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반대하기 때문이다. 양심에 나타난 선행적 은총이 인간을 신앙적으로 하나님에게 전환시키기에 넉넉하다는 것 또한 아니다. 인간을 참회와 의인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그 이상의 은총이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의 길에 발을 디디게 하기 위하여 인간의 생활 속에 직접 개입하신다는 뜻이다. 선행적 은총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업에 대하여 응답하거나 반항하는 첫 기회를 준다. 이 때문에 웨슬리는 하나님의 존재에 관한 전통적 논쟁들을 이해하는데 거리낌이 없다. 이것들은 매우 부적당하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자신을 직접적으로 계시하심에 있어서 첫째, 선행적 은총에 의한 예비적 방법으로(양심을 통하여), 그 다음에는 확신적 은총에 의한 직접적인 방법으로(복음을 통하여) 나타내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선행적 은총은 하나님의 구속사업의 출발점이고 이 은총은 모든 인간에게 현존한다.

그렇다면 모든 인간에게 있는 이 양심을 세 가지로 구분한 웨슬리의 견해를 살펴보자.

---

229) John Wesley, "'Catholic Spirit,'" 302.

첫째 선한 양심(good conscience)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하는 양심이다. 하지만 이 양심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소유하거나 지속할 수 없다. 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하고, 깨닫게 하며, 우리의 모든 생각들과 말과 행동들을 기억할 수 있게 함으로써 우리 자신의 성질과 생활을 깨닫게 하여 결국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양심이다.

둘째 부드러운 양심(tender conscience)이란? 우리의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보게 되면 즉시 죄책감을 느끼며 자신을 정죄하는 것이다. “나쁜 일들이 혐오스럽게 다가오는 첫 순간에 나의 부드러운 양심이 행동하길 바랍니다. 아주 작은 죄의 접촉도 내 눈동자가 즉시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sup>230)</sup> 성경에서도 정죄하지 않은 어떤 것을 죄스럽다고 생각하고, 성경에 없는 것들도 바로 자신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이런 고통스런 죄 의식 속에서 벗어나고 좋은 마음의 상태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진실된 기도를 드려야만 한다.<sup>231)</sup>

셋째 완악한 양심(hardened conscience)이란? 부드러운 양심보다 천배는 더 위험하다. 그것은 어떤 자신의 정죄함 없이 하나님의 명백한 명령을 위반 할 수 있다. 또한 그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금지하신 것을 행하거나, 명령하신 것을 무시하기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죄책감이 없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상은 웨슬리 신학에서 나타나는 독특성으로 종교 개혁자들의 중심사상인 의인 이전 곧 선행적 은총 아래 있는 인간에게 만이 아니라, 의인 이후 곧, 완전의 교리에까지 신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개념은 매 단계마다 다른 의미를 지닌다. 선행적 은총에 응답하고 자기의 양심에 복종하려는 인간이 그것으로 의인 되지는 못한다. 그러나 그는 보다 많은 은총을 받고 의인의 은총으로 인도될 준비가 갖추어져 있다.

---

230) John Wesley, "On Conscience," *Works* III, 486.

231) 김홍기, 「존 웨슬리 구원론」, 114.

“지금 당신 속에 있는 은총의 불꽃을 뒤흔들어라.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에게 보다 많은 은총을 주시리라.”<sup>232)</sup> 하나님은 자연적 인간 속에서도 그를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역사하고 계심으로 “인간의 범죄는 그에게 은총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이 선행적 은총의 사용이 인간의 공적이라고 믿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보급된 능력에 의해서만 가능한 응답이 되고, 또한 구원의 길은 하나님이 그의 은총으로 우리를 계속적으로 북돋우어 줄 때에만 열려질 수 있다. “그는 당신의 아무런 공적 없이 자기 자신의 뜻에 따라 당신 안에서 일하신다.”<sup>233)</sup>

## 2) 선행적 은총으로서의 이성

웨슬리는 인간의 지각, 지성 혹은 이성을 “참과 거짓을 구별하는 능력”(a power of distinguishing truth from falsehood)이라고 정의한다.<sup>234)</sup> 넓은 의미로 지각의 작용은 모든 종류의 이성적인 활동, 다시 말하자면, 사고, 판단, 상상, 기억등과 같은 것이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속성을 인식할 뿐만 아니라 선과 악을 파악하는 능력으로 사물을 접하는 순간 그 특성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웨슬리에 의하면, 타락 이전 아담과 하와는 속성을 보는 순간 완전하게 이해하고, 각기 다른 사물들을 정확하게 비교하며 추론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이성(理性)은 영적인 것을 깨달을 수 없고 또 판단할 수도 없게 되었다. 하지만 선행적 은총은 타락한 이성을 자극시키는 성령의 활동적인 은총으로 다가온다. 웨슬리는 당신의 이해의 눈이 열릴 때까지는 영적인 것을 깨달을 수 없고 또 전혀 알 수 없다. 왜냐하면 이성은 서야할 토대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232) John Wesley, *Works*, VI, 513.

233) *Ibid.*, 512

234) John Wesley, “The Image of God,” 15.

강조한다. 그는 “이성을 공평하게 고려함”이란 글에서 이성을 다음과 같이 정의 한다.

이성은 세 가지 방식으로 자신을 발휘하는 인간 영혼의 능력이다. 단순한 이해와 판단과 담화가 그것이다. 단순한 이해는 사물을 거의 마음에 보듬지 않는 이해의 첫 단계이며 가장 단순한 이해의 행위이다. 판단은 사물을 마음에 보듬기 전에 동의해야 할지 아니면 서로 구분해야 할지를 결정하는 행위이다. 담화는(은밀히 말하자면) 하나의 판단에서 또 다른 판단으로 움직이는 마음의 운동과 과정이다.<sup>235)</sup>

이렇게 웨슬리는 이성이 마땅히 주어져야 하며 그의 몫을 다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실제적인 생활에서 이성의 결정적인 역할을 평가절하(平價切下)하는 사람들을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당신이 종교에서 이성을 제거 하고자할 때 당신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결코 장려하는 것이 아니다. 당신이 눈을 고의적으로 감지 아니 하고서는 하나님의 영의 지도 아래에서 이성이 참된 종교의 기초를 놓으며, 사상체계의 상부구조를 세우는데 기여한다는 점을 보지 않을 수 없다. 당신은 이성이 믿음과 실천의 모든 면에서 우리를 지도한다는 것을 보고 있다. 이성은 내적인 성화와 외적인 성화의 모든 분야와 관련하여 우리를 인도한다.<sup>236)</sup>

그런가 하면 이성을 극단적으로 찬양하는 태도도 비판을 한다. 그들은 이성을 쉽게 과대평가(過大評價)하고, 이성을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로 여기며, 그것을 가장 좋은 색깔로 칠하고, 높이 평가절상(平價切上)한다. 또한 이들은 ‘이성’이 모든 진리로 이끌어 주며 선함으로 그들을 이끄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에게 웨슬리는 이렇게 말한다.

이성으로 하여금 이성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도록 하자. 이성이 할

---

235) John Wesley, “The Case of Reason Impartially Considered,” Works II, 590.

236) Ibid., 599.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그것을 적용하라. 그러나 동시에 이성(理性)은 믿음이나 희망 또는 사랑을 줄 능력이 전혀 없음을 시인하라. 결국 참된 가치나 본질적인 행복을 산출하지 못함을 시인하라. 이런 것들은 보다 더 높은 근원에서 모든 육체의 영들의 아버지에게 기대하라. 이것들을 당신 자신의 권리로 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서 추구하고 받아들이라.<sup>237)</sup>

그렇다면 ‘이성에 대한 과대평가와 과소평가라는 두 극단 사이에 중용은 존재하는가?’를 웨슬리에게 물었을 때 그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말하며 자신이 이성에 대해 중도적 해석함에 있어서, 이성은 농부에게 어떤 시간에 어떤 방법으로 그의 경작지를 경작할지 지시해 주고 화가, 조각가, 음악가가 하나님 섭리로 그들에게 지정해 준 어느 장소에서든지 최선을 다하게 할 수 있으며 사람이 몇 년 동안 발명해 온 어떤 기술과 산업에 어떤 가르침을 줄 수 있고 현 세계에 관련한 모든 일들에서 놀랄만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심치 않는다고 말한다.<sup>238)</sup>

웨슬리는 오래 동안 주의 깊게 이성의 종교적 의의를 검토했다. 그의 연구 결과는 “이성 문제의 공평한 고찰”이라는 설교에 나타난다. 여기서 그는 영지주의와 불가지론(Agonsticism)의 두 가지 극단론(極端論)의 폐단(弊端)에서 기독교 신앙을 구출하고자 하였다. 이 두 사상 중 하나는 종교에서 지성(知性)을 지나치게 중시하고, 다른 하나는 지나치게 경시한다. 그러면서 그는 이 설교에서 기독교 신학이 옛 회랍 사상에서 전해 받아 1500년간이나 간직해 오던 이성 존중사상을 배격하고 반이성적 경향으로 나가고 있는 현대 종교 사상(思想)과 궤도(軌道)를 같이 하였다. 기독교 사상은 근대 비판정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이 회랍적 이성 존중 사상으로부터 해방되어 인간으로 하여금 “실재와 이상의 참 모습을 알게 하여 이 두 가지는 다 지식 이상의 것”임을 인식하게 했다. 웨슬리는 종교에서 지적(知的) 능력이나 이성의 배타적

---

237) Ibid., 600.

238) 김홍기, 「구원의 완성을 향한 순례」, 41.

(排他的) 독자성과 창의성을 격하시켰다. 그는 “이성은 신앙을 산출하지 못한다.”고 말하며.<sup>239)</sup> “소망이나 사랑은 오직 기독교 신앙으로부터만 산출된다.”고 했다. 그러므로 이것이 진실이라면, 이성은 기독교 경험상 신앙, 소망, 사랑을 산출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성을 아무리 북돋우고 발전시킨다 해도 기독교 경험의 제일 원리가 되는 신앙은 산출할 수 없다.” 다만 “그림속의 불”에 지나지 않는다. 이성은 그 이상 더 나아갈 수 없다. 나는 혹시나 이성이 신앙을 산출할 수 있을까 하여 여러 나라의 훌륭한 찬송가들이나, 기도문들이나, 명상 등을 될 수 있는 대로 다 구해 그것들을 반복하여 정성스럽게 노래도 해 보고 읽어도 보았다. 그러나 나의 이러한 시도는 실패였다. 그래서 나는 마침내 “이성으로 최선을 다하게 하라. 그리고 이것을 최대한 활용하라. 그러나 기억할 것은 이것은 절대로 믿음이나 소망이나 사랑을 줄 수는 없다. 이것은 경험이 증명한다. 이것들은 우리의 노력으로 획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만이 이 구원의 신앙을 줄 수 있다.”라고 말함을 볼 때 웨슬리에게서 이성의 위치는 선행적 은총, 그 이상의 것도 그 이하의 것도 아님을 발견한다.

### 3) 선행적 은총으로서의 자유의지

웨슬리는 선행적 은총인 자유의지로 구원의 준비 단계에 이른다고 주장한다. 선행적 은총 자체가 구원은 아니다. 그것은 구원의 첫 여명이요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는 첫 발걸음이요 하나님의 첫 이끄심이다.

김홍기 교수는 이 선행적 은총으로 구원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 수도 있고 열지 않을 수도 있는데, 자유의지의 결단으로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며 선행적 은총으로 구원의 은혜를 열심히 사모하게도 된다고 주장한다.<sup>240)</sup> 뽕

---

239) G. S. Cell, *The Rediscover of Jone wesley* (New York: Wani Holt and Company, 1934), 194.

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오의 열심, 엘리야가 영감을 갑절이나 받으려고 사모했던 열심이 선행적 은총이다. 선행적 은총의 자유의지는 구원을 완성할 수도 있고 다윗의 실수처럼 타락하고 떨어질 수도 있다고 해석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행적 은총에 의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의 완성을 향해 달려가야 된다는 것이다.

반면 이선희 교수는 이에 반대한다. 웨슬리는 인간이 구원을 얻는데 있어서 ‘하나님이 행하시고 인간이 결단한다.’는 식의 2단계 구조를 말하지 않는다. 웨슬리는 철저한 신본주의자이다. 웨슬리신학에 있어 구원의 주체는 100%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인간의 가능성을 철저히 배제한다. 이를 그의 신학 구조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그의 신학 구조는 모든 구원의 단계마다 3박자로 되어 있다. 이는 복음주의자들의 공통구조이다. 그 구조는 하나님께서 설득하심<sup>241)</sup> - 인간의 반응(설득 당함)<sup>242)</sup> - 하나님께서 이루심의 구조이다. 즉 하나님께서 자명성을 가지시고 설득하시면 인간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선한 쪽으로 반응하며(이 때 인간이 직접 행하는 일이란 없다), 하나

240) 김홍기 「존 웨슬리 구원론」, 115.

241) 존 웨슬리, “성경적 구원의 길,” 「존 웨슬리 설교선집(1)」, 220-223. 믿음은 보이지 않는, 시각으로나 또는 외적 감관 중 다른 무엇으로도 감지되지 않는 ‘보지 못한 것들에 대한 자명한 확신, 하나님이 주시는 자명성과 확실하게 설득됨이다. 이것은 ①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들의 초자연적 자명성, 영혼에게 나타내진 일종의 영적인 빛을 의미한다. ② 그것을 초자연적으로 보는 것 또는 감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는 자연적 ‘눈이 보지 못했고, 귀도 듣지 못했던’ 것들을 보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불가시적 일들을 본다. 우리는 자연적 기능들로써는 마치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분별해 낼 수 없었던 그 영적 세계를 이제 본다.

242) 이선희, “머리말,” 「존 웨슬리 설교선집(1)」, 29. 하나님의 설득은 이성(理性)의 설득이 아니라, 이성을 초월하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초월적 자명성에 의하여 직관적으로 설득되는 확신이기 때문에, 이성의 추론적 논증에 설득되어 동의한다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과 내용의 설득이다. 하나님의 설득은 하나님의 본질적 형상인 영혼 안에서 하나님의 초월적 능력에 의하여 이해력과 의지와 정서에 일어나는 현상으로서, 죄로부터 떠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것을 유일하고도 본질적인 내용으로 하는 하나님 자신의 초월적 설득하심과 인간의 직관적 설득됨이다.

님께서는 인간의 선한 반응을 보시고 직접 그 일을 이루신다고 주장한다.

웨슬리는 말하기를 “만약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서 일하신다면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이루라. 여기서 ‘이루다’는 말의 원 뜻은 어떤 일을 철저히 하라는 의미이다. ‘너희 자신’이라는 말은 너희 자신이 이일을 수행하지 아니하면 그 일은 언제까지나 해결되지 않는다는 뜻이다.”<sup>243)</sup>라고 하였다. 즉 웨슬리의 선행적 은총의 구원과정을 요약하면 첫째 구원을 사모하는 열심, 둘째 믿음을 받아들이는 결단, 셋째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심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최초의 선행적 은총으로 시작되고 인간의 최초의 응답으로 구원을 열망하고 믿음으로 응답하며 회개함으로써 시작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웨슬리는 구원이 점진적임을 말한다.

성경에서 보여주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경험도 이 구원은 순간적이며 동시에 점진적인 것임을 보여줍니다.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대하여 기록하고 겸손하며 고상하고 오래 참는 사랑가운데서 의롭다함을 받는 그 순간에 시작됩니다. 그리고서는 그 순간부터 구원은 점진적으로 성장하여 “겨자씨 한 알이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지만 나중에는 많은 가지들을 내어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마13:31) 됩니다.<sup>244)</sup>

이 점에 있어서 칼빈 주의자들은 웨슬리가 말하는 선행은총의 이해를 오해한 나머지 마치 웨슬리가 펠라기우스적인 신인협동설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중세 신학을 지배한 펠라기우스적 자유의지설은 자연인으로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본성적 자유의지를 갖는다고 보는 것이다. 즉 인간은 타락하지 않았고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지도 않았기에 유아세례도 필요 없다고 보았다. 하지만 웨슬리는 자연인의 원죄성과 부패를 믿는다. 자유의지는 자연적, 본성적으로, 날 때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행적 은총에 의해 회복됨을

---

243) John Wesley, "On Working Out Our Own Salvation," 488.

244) Ibid., 488-489.

믿는 것이다. 때문에 웨슬리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이제까지 자유의지를 말하지 않았다. 인간의 현재 상태에서 볼 수 있는 자연적 자유의지라는 것을 나는 알지 못한다. 나는 다만 이 세상에 온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초자연적인 빛과 함께 모든 인간에게 초자연적으로 회복된 얼마만큼의 자유의지가 있다고 주장 하였을 뿐이다.”<sup>245)</sup>

이것은 펠라기우스자들이 주장하는 신인협동설(synergism)과는 다른 의지의 능동적 참여가 아닌 수동적 참여이다. 즉 하나님이 주도권을 갖고 역사하는 구원의 은총에 응답하는 복음적 협력설이다(evangelical synergism). 이를 가리켜 아르미니우스주의(Arminianism)라고 한다. 그 당시 영국 성공회는 아르미니우스주의를 받아 들였으므로 영국성공회 성직자였던 웨슬리 역시 아르미니우스적 자유의지론을 받아들인 것이다.<sup>246)</sup>

이 아르미니우스적 자유의지론은 칼빈의 불가항력적 은총론을 거부한다. 하나님의 은총은 인간의 인격적 응답과 책임적 결단을 무시하고 거부할 수 없도록 불가항력적으로 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아르미니우스적 자유의지론은 또한 칼빈의 제한된 속죄론을 비판한다. 곧 제한 속죄론은 그리스도의 보혈이 제한된 사람, 예정에 들어있는 사람만을 위한 속죄의 은총을 부여한다고 보지만, 아르미니우스는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총이 만인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만인 속죄론을 주장한다. 이에 대한 웨슬리의 언급들을 소개한다.

예정론으로 기울이기를 좋아하던 성 어거스틴도 “인간 없이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인간 없이 인간을 구원 하시지 않는다.”(Qui fecit nos sine nobis, non salvabit nos sine nobis)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이 패역한 세대로부터 그 자신을 구원하지 아니하면,” “인간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에 힘쓰지 않으면” “자기를 부인하고 매일 자기의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그리고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하기 위하여 모든 수단을

---

245) John Wesley, “Predestination Calmly Considered,” *Works*, X, 229-230.

246) 김홍기, 「존 웨슬리 구원론」, 118.

기울이지 않으면”,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sup>247)</sup>

웨슬리는 칭의 구원적 측면에 있어서 인간이 믿음으로 응답하므로 구원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응답은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된 초자연적 선행적 은총에 기인한 것이며 따라서 우리의 본성적인 자유의지의 권한으로 응답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sup>248)</sup> 왜냐하면 우리 자신의 노력이 지나치게 강조될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수동적 (passive)이며 주도적인 전가(initiative imputation)에 의해서 이루어진 구원이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다.

---

247) John Wesley, "On Working Out Our Own Salvation," 491.

248) B. W. Tabraham, *The Meaning of Methodism* (Epuborth press, 1995), 35.

## IV. 칼빈과 웨슬리의 자유의지 비교

본장에서는 칼빈과 웨슬리의 자유의지를 구원의 순서에 따라 비교 검토함으로써 두 사람의 주장이 거의 동일함을 입증하고자 한다.

### 1. 창조된 인간

웨슬리나 칼빈은 성경적 기초 위에 하나님을 우주의 창조자라 언급하며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 말하고 있다. 특히 인간은 다른 피조물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독특한 섭리 가운데 창조되었음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에게 부여된 것을 공통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또한 두 사람은 하나님을 단순히 창조자로만 본 것이 아니라 통치자로도 보았다. 이 점과 관련하여 임승안은 “웨슬리가 18세기 영국의 이신론자들과는 달리 하나님을 창조자이면서 통치자로 보고 있다”<sup>249)</sup>고 말하고 있고 윌리엄 부스마도 “칼빈이 창조자 하나님보다는 통치자 하나님에게 더 관심을 기울였다”<sup>250)</sup>고 언급함으로써 두 신학자가 하나님의 통치를 강조함으로써 타락한 인간을 향한 새 창조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 1) 선하고 영원한 피조물

웨슬리와 칼빈은 인간의 선하고 영원한 창조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에서 견해(見解)의 일치를 보이고 있다. 이 점과 관련하여 이오갑은 칼빈의

---

249) 임승안, “요한 웨슬리의 생애,” 「존 웨슬리의 역사신학적 조명」, 김흥기 외 공저 (서울: 감리교신학대학교 출판부, 1995), 124.

250) 윌리엄 J 부스마, 「칼빈」, 이양호·박종순 공역 (서울 : 도서출판 나단, 1993), 391.

말을 인용하여 “인간은 어떤 오점도 없었고 그 자신 가운데 어떤 분열이나 분리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았으므로 그분을 알 수 있었고 또 선을 행할 수 있었다.”<sup>251)</sup>고 주장한다. 칼빈이 언급한 인간은 선하고 완전하게 창조되었으므로 그의 타락에 대해서는 인간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이다.

웨슬리는 “영혼의 본질적인 성질로써 영혼의 불멸”을 언급하였는데 칼빈도 이에 동의하며 인간이 불멸적 존재임을 지적 하였다. 한편, 웨슬리는 인간의 영원성을 논할 때 영혼뿐만 아니라 영혼의 불사상태도 언급하곤 하였는데, 칼빈은 이와 달리 영혼의 불멸성만을 언급하였다. 아마도 이것은 칼빈이 플라톤의 이원론적 사고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 2) 하나님의 형상

웨슬리는 인간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형상을 세 가지의 형태, 즉, 본질적 형상, 도덕적 형상, 정치적 형상으로 구분하였지만 칼빈에게는 구체적 구분이 없었다. 칼빈은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을 다른 피조물과 구별시키는 것으로서 의와 청결과 거룩함과 지식이라고 말하였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종성은 “칼빈이 말한 하나님의 형상은 도덕적, 지적, 종교적 요소가 합한 것”<sup>252)</sup> 이라고 말하고 있다. 한편, 칼빈이 말한 거룩함과 의로움은 웨슬리가 말했던 도덕적 형상과 일치하며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의 형상과 관련하여 도덕적 형상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그리고 타락 전 후의 양상이 크게 바뀐 것이 바로 이 도덕적 형상임을 두 신학자 모두 강조하고 있다.

(1) 본질적 형상 : 웨슬리는 본질적 형상을 이해와 의지, 그리고 자유라

251) 이오갑, “인간론,” 「칼빈신학해설」(서울 : 대한기독교서회, 1998), 156.

252) 이종성, 「칼빈」(서울 : 대한기독교서회, 1998), 114.



는 세 용어로 설명하고 있음에 대하여 칼빈은 이해와 의지라는 두 단어로 언급하고 있다. 여기서 이해(understanding)라고 하는 부분은 웨슬리와 칼빈이 서로 상통하는 부분이지만 의지(will)라는 부분은 두 신학자 간의 차이를 보인다. 웨슬리는 의지를 감정(affection) 차원에서 설명했다면 칼빈은 자유(liberty) 차원에서 말하고 있다. 이에 윌리엄 부스마는 칼빈에게도 감정의 부분이 있음을 언급하고 있음에 결국 두 사람의 용어상의 차이를 제외한다면 본질적 형상에 대해서는 이해와 자유의지 그리고 감정으로 나누고 있음이다.

(2) 도덕적 형상 : 웨슬리와 칼빈 모두 “의로움”과 “거룩함”을 도덕적 형상으로 보고 있으며 인간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형상을 언급할 때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으로 칼빈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용어를 도덕적 형상에 국한시켜 적용하려고 했으며 세 가지의 하나님의 형상을 언급했던 웨슬리도 “도덕적 형상이 피조된 인간 속에 있는 가장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sup>253)</sup>이라고 생각하였다.

또한 웨슬리와 칼빈은 인간이 타락한 후에도 이해나 자유의지는 어느 정도 남아 있지만 이 도덕적 형상은 완전히 상실했다함에 견해의 일치를 보이고 있으며 은총으로 말미암아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을 말할 때는 대부분 도덕적 형상을 의미한다.

(3) 정치적 형상 : 웨슬리와 칼빈은 인간이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창조되었다는 점에 일치된 견해를 갖고 있다. 칼빈의 경우 인간과 인간 외의 다른 피조물들 사이의 질적 차이를 말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피조물들은 명령에 의해 지으셨지만 인간만큼은 상의(consultation, 相議)를 통해서 만드셨다”고 말하는데 여기서 이 상의(相議)는 하나님이 인간을 가장 존귀히 여기셨다는 증거<sup>254)</sup>라고 말하고 있다. 한편 웨슬리는 피조물들도 낮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스스로 움직이는 능력, 이해력, 감정, 자유와 선택의 능력이라

253) 김홍기, 「존 웨슬리신학의 재발견」(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6), 69.

254) John Calvin, 「창세기」, 존칼빈성경주석출판위원회 역(서울: 신교출판사, 1978), 73.

는 본성적 형상을 지니고 있으나 이 두 존재 간의 격차는 넘을 수 없는 경계선이며 거대한 만(great gulf)과 같다고 말하고 있다.

이렇게 구별된 창조와 함께 하나님의 형상으로써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지배권을 주셨다는 것이 두 신학자의 일치된 견해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 지배권을 부여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들이 인간에게 복종하도록 만드셨다고 한다.

## 2. 타락한 인간

### 1) 인간의 타락과 그 결과

칼빈에게 있어서 원죄라는 인간 타락의 결과를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total depravity)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타락은 인간의 전(全)존재에 치명적 악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데 이점과 관련하여, 이종성은 칼빈의 「기독교강요」를 인용하여 “이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미친 상처는 인간존재의 한 부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육체와 영혼 전체에 까지 미쳤음”을 언급하며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존재 전체가 사악의 홍수에 침몰되고 말았으며 그 본성의 어느 부분에도 완전성은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sup>255)</sup>

웨슬리에게도 칼빈의 견해와 일치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이점에 대해서 김홍기는 웨슬리의 설교를 인용하며 “그가 범죄하자 그는 유한하고 썩어야 하는 흠이 되었다. ……그리고 죽음의 씨는 바로 우리의 본성 속에 있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이렇게 타락으로 말미암은 인간의 선한 본성은 부패한 것뿐만 아니라 그의 영원성과 불멸성에도 영향을 주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의 존재들이 된 것이다.

---

255) 이종성, 「칼빈」, 116.

## 2) 타락 후 하나님의 형상

(1) 부분적으로 상실된 본성적 형상 : ① 이해(이성) - 웨슬리와 칼빈은 인간이 타락한 후에도 어느 정도의 이해력이 남아 있다고 생각하여 인간의 이성은 심하게 부패하였기 때문에 기능상의 많은 결함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이성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에 오를 수 없었으며 말씀에 대해서 영적으로 무지하게 되었고 인간의 이해는 자유의지와도 연결되어 무엇이 옳고 그름을 판단, 또는 선택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음을 말하고 있다.

②의지(자유의지) - 웨슬리와 칼빈은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자유의지의 노예 신세에 대해서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다. 웨슬리는 자연인이 선을 행할 수 있는 의지 혹은 능력이 있다는 것을 부정하며 그의 유일한 소망을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두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고<sup>256)</sup> 칼빈은 어거스틴이나 루터처럼 의지의 노예 신세를 강조함으로써 인간의 공로사상을 주장한 에라스무스나 펠라기우스를 비판하며 오직 신앙만(sola fide)을 강조하고 있다.<sup>257)</sup>

한편 웨슬리와 칼빈이 전적인 타락을 말함으로써 인간의 자유의지는 악으로 치우치는 성향을 지니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웨슬리는 자연인이 시종 일관 완전히 타락한 존재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의 영적인 성질 또한 완전히 타락했다고 보고 있다. 그의 마음 속에 있는 타락은 내적, 외적 모든 죄의 근원이며 악의 뿌리라고 말하고 있다.<sup>258)</sup> 칼빈도 자연인의 완전 타락을 언급하면서 인간의 자유의지가 선을 선택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 선조차 항상 악으로 오염되어 있다고 생각하였다.<sup>259)</sup> 이렇게 웨슬리와 칼빈이 인간의 의지가 완

---

256) H. Lindstroem, 「웨슬레와 성화」, 전종욱 역 (서울: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육국, 1984), 21.

257) 이종성, 「칼빈」, 118.

258) H. Lindstroem, 「웨슬레와 성화」, 22.

전한 타락과 노예 됨을 언급함으로써 인간의 공로사상을 배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③감정(affection) - 웨슬리는 “인간에게 부여했던 화려한 의지(감정)는 비천한 욕망에 사로 잡혔고 슬픔, 증오, 분노, 두려움과 수치심이 한꺼번에 인간 의지(감정)에 쏟아 부어졌다. 더욱이 일련의 세속적이고, 관능적이며, 악마적인 열정들이 인간 의지에 달라붙어서 산산조각 내었으며, 하나님의 사랑은 오히려 고통이 되었다.”<sup>260)</sup>고 주장한다. 또한 “인간의 의지가 왜곡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 이상 인간의 행복의 중심이 되지 않으며, 그들의 행복은 오히려 많은 소유물, 풍부한 재산, 놀이생활 등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sup>261)</sup> 한편 부스마는 “칼빈은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고 외면적인 덕들과 더불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사랑이 있었다.”고 말했는데, 인간이 타락하고 난 후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자기중심적인 불안에 압도되어 “외로움”에 가득 차 있게 되었다고 말하며 외로움은 사람들을 정욕에 불타게 하고, 야망에 휩쓸리게 하며, 탐욕에 사로잡히게 하였다고 언급하고 있다.<sup>262)</sup>

(2) 전적으로 상실된 도덕적 형상 : 웨슬리에게 있어서 인간의 타락은 도덕적 형상의 전적상실을 가져오게 되었다고 말한다. 그의 설교 원죄(“Original Sin”)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간은 악마의 형상과 짐승의 형상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 김홍기는 웨슬리가 이러한 인간의 상태를 “본성적 인간 또는 자연인(the natural man)”이라고 언급했음을 지적하면서 “이 상태의 사람은 자신의 욕망,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속에서 사는 인간이기에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도 없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도 없는 영적 무감각 상태

---

259) 윌리엄 W. 부스마, 「칼빈」, 319.

260) 김홍기, 「존 웨슬리의 구원론」, 67

261) 임승안, “요한 웨슬리의 생애,” 159.

262) 윌리엄 W. 부스마, 「칼빈」, 322.

이다”<sup>263)</sup> 라고 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은 자유하기는 하나 그 자유는 죄짓는 자유로서, 참 자유가 아니라 죄의 노예와 죄의 종”임을 말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칼빈 또한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존재 전체가 사악의 홍수에 침몰되고 말았으며 그의 본성의 어느 부분에도 완전성은 남아 있지 않다.”고 언급하며 인간은 죄의 노예가 되어 있으므로 자기 자신의 본성으로써는 선을 향하여 노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느낌도 가질 수 없다고 말하고 인간의 의지를 말(馬)에 비교하는 어거스틴의 입장을 들어 “하나님의 은총의 도움을 받지 않는 한 인간은 선행을 위한 자유의지는 소유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였다.<sup>264)</sup>

웨슬리와 칼빈이 인간의 타락과 관련하여 인간이 죄의 노예상태에 이르게 되었음을 언급함은 인간은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무지하여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으며 더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었음과 그들이 부여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극도로 왜곡되었으며 하나님의 은총이 없이는 그것이 회복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3) 부분적으로 상실된 정치적 형상 : 칼빈은 인간이 타락 후에 부여 받았던 지배권을 상실했음을 언급하면서 “인간은 짐승들을 지배하는 이성적 피조물로 여겨지기를 원한다. 그러나 인간이 이러한 영광에 합당한 존재가 되려면 그는 먼저 짐승들의 학교에 보내져 짐승들로부터 배워야 한다. 할 정도로 인간은 모든 것을 도착시켜 버렸다”고 말한다.

두 신학자 모두 지금의 자연계 모습을 본래의 창조된 모습과는 많은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는 결국 인간에게 부여된 정치적 형상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인간의 타락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

263) 김홍기, 「존 웨슬리의 구원론」, 80.

264) 이종성, 「칼빈」, 116 - 118.

인간은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기 보다는 자연을 정복하고 파괴하는 부정적인 모습을 지니게 되었다는 것이 칼빈과 웨슬리의 공통된 견해이다.

### 3. 회복된 인간

#### 1) 하나님의 예정과 의지

종교개혁의 신학을 조직적으로 체계화 시켰다고 할 수 있는 칼빈은 당연히 루터의 “오직 은혜로만(*sola gratia*)”의 신학위에 굳건히 서 있다. 이것은 구원에 있어서 “오직 교회를 통해서만” 이라는 카톨릭 교회의 남용에 반하여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작정과 주도권을 강조한 루터의 개혁정신을 칼빈이 이어받고 있다는 것이다.<sup>265)</sup> 이렇게 하나님 주권과 섭리의 수위성을 강조하며 인간과 하나님과의 현저한 질적 차이를 말하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인간의 선택에 항상 우선하며 인간은 하나님의 섭리와 명령에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하고 전적으로 순종해야 함을 말하고 있다. 이러한 그의 사상은 결국 그의 저서 「기독교 강요」 제3권 21장의 첫머리에 “하나님께서서는 어떤 사람은 구원으로, 또 어떤 사람들은 파멸에 이르도록 예정하셨다”고 말하는 예정론을 주장하게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칼빈의 교리에 대해서 웨슬리는 아르미니우스의 입장과 함께 그의 선행적 은총의 입장에서 비판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칼빈의 예정론에 대한 비판은 그의 동료였던 조지 휘필드(George Whitehead)와 서로 갈라지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sup>266)</sup> 이러한 의미에서 칼빈의 예정론과 그에 대한 웨슬리의 입장을 연구함이 두 인물간의 신학을 이해하는데 중요하다.

---

265) Mildred B. Wynkoop, 「칼빈주의와 웨슬레신학」, 한영태 역 (서울 : 생명의 말씀사, 1996), 33-35.

266) 김홍기, 「존 웨슬리의 구원론」, 87.

웨슬리는 이중예정 교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은폐시키는 불경건한 생각이라고 여기고 “하나님은 그의 자비와 은혜를 모든 사람 안에 값없이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이를 위하여 값없이 주시는 것임”을 강조하며<sup>267)</sup> 비록 믿는 자들만이 그리스도의 용서를 얻을 수 있지만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은 선택된 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한 것임을 말한다.<sup>268)</sup> 칼빈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유의 수위성을 강조한데 반해, 웨슬리는 인간의 믿음의 반응에 중요한 위치를 부여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웨슬리는 예정론을 비판하면서 예정론은 모든 설교를 헛된 것으로 만들고 선택된 자들에게는 설교가 필요 없는 것이 되어 버린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예정의 성결을 추종하는 동기들을 모두 없애버리기 때문에 예정의 교리가 성결을 파괴하는 분명한 경향이 있다고 말하였다.

웨슬리는 칼빈의 이중예정은 부정하였지만 구원과 상관 없는 특수예정 (special predestination)은 인정하였는데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선교사역 차원에서 왕, 사도, 목사 등을 선택하시고 예정하였다는 것을 인정하였다.<sup>269)</sup>

결론적으로 예정론과 관련된 칼빈과 웨슬리에게 있어서의 신학적 차이는 믿음에 대한 이해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웨슬리는 온전한 구원은 사랑과 순종의 완전이라고 가르치며 믿음에 있어서 칼빈은 정적이며 웨슬리는 역동적이다. 웨슬리는 믿음이 구원의 원인이 아니라 조건이며 믿음은 성화의 대체물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sup>270)</sup> 한편 웨슬리는 성도의 견인이라는 칼빈의 주장과는 반대로 인간은 약하고, 무너지고, 유혹받기 쉬워서 항상 하나님의 은총을 새

267) Ibid., 88.

268) 아르미니우스는 1610년 그의 「항의서 (Remonstrance)」에서 “그리스도는 온 세상의 구세주로 선포 되었다”고 밝혔는데 이점은 아르미니우스와 웨슬리가 예정론을 거의 같은 관점에서 비판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후정, “존 웨슬리의 생애와 사상,” 「웨슬리와 감리교신학」, 한국웨슬리신학회 편 (서울: 감리교신학대학교 출판부, 1999), 310.

269) 김흥기, 「존 웨슬리의 구원론」, 84.

270) Mildred B. Wynkoop, 「칼빈주의와 웨슬리신학」, 65-66.

롭게 공급 받아야 함을 강조하며 우리의 의요 생명이신 그리스도에 늘 접붙여짐으로써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가야함을 강조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신학적 차이를 근거로 해서 웨슬리는 칼빈의 예정의 은총과는 전혀 색다른 선행적 은총에 관한 견해를 피력하게 된다.

## 2) 선행적 은총

(1) 웨슬리의 선행적 은총론 : 칼빈의 예정 은총과는 달리 웨슬리는 선행적 은총이라는 견해를 도입하게 된다. 이 선행적 은총은 그리스도의 대속과 관련된 회개의 신앙 이전에 모든 인간에게 일반적으로 주어지는 은총으로써 이로 인해 사람들이 말씀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이며 인간은 구원을 사모하는 열심과 마음의 문을 여는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선행적 은총으로 칼빈의 불가항력적 은총론을 거부하고 인간의 인격적 응답과 책임적 결단을 각오하며 그리스도의 속죄가 예정된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임을 말하고 있다.<sup>271)</sup> 물론 웨슬리에게 있어서 인간회복의 주체(initiator)는 역시 하나님이었으며 인간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공로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웨슬리는 구원의 주체로서의 하나님을 강조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책임성을 강조하면서 선행적 은총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한편 칼빈이나 루터처럼 웨슬리도 “원죄”라는 기독교 전통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그래서 어떤 선을 행하거나 인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스스로는 아무 것도 행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에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의 형상이 부분적으로 회복될 수 있다고 믿었고<sup>272)</sup>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아르미니우스주의를 받아들였다. 또한 웨슬리는 비록 인간

271) 김홍기, 「존 웨슬리의 구원론」, 118.

272) Ibid., 104.



이 타락했지만 선행적 은총에 의해 양심과 자유의지가 회복되었다고 믿었으며 인간의 회복에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니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아무 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아니하면 인간이 자신의 구원을 이룩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sup>273)</sup>.

이렇게 웨슬리는 구원의 주체로서 하나님을 강조 하였다.

(2) 인간 회복을 위한 인간의 이성과 자유의지의 역할 :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인간이 지니고 있던 이성과 자유는 심하게 부패되고 왜곡되었다. 그래서 인간이 선을 행하려 하기보다는 악으로 기우는 죄의 노예의지를 지니게 되었다는 것이 칼빈과 웨슬리의 일치된 견해이며 인간의 이성으로는 믿음을 생산해 낼 수 없고, 어떤 사람들에게도 소망을 샘솟게 해줄 수 없으며, 그것이 아무리 개발되어지고 발달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생산해 낼 수 없음은 물론 선한 의지를 만들어 낼 수 없다함을 지적하고 있다.<sup>274)</sup> 또한 부스마는 그의 저서에서 칼빈이 인간의 이성으로는 기독교의 진리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으며 복음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고 십계명조차 제대로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맹목적이라고 언급하였음을 지적하였다.<sup>275)</sup>

### 3) 성화

오직 신앙만을 의존했던 루터와는 달리 칼빈은 성화의 삶을 강조했다는 측

---

273) John Wesley, "On Working Out Our Own Salvation", 207-208

274) Ibid., 108-109.

275) 윌리엄 W. 부스마, 「칼빈」, 356-358.

면에서 웨슬리적인 요소가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웨슬리는 율법을 무시하지 않고 선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명령으로서 우리가 힘써 지켜야 함을 강조하였는데 칼빈도 율법의 제3의 용법을 추가함으로써 성화의 삶을 강조하였다. 더욱이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그러한 과정 속에서 성화의 삶이 강조되었음을 발견한다.

웨슬리는 인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랑해야 함을 강조하였으며 그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 구체화함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나타내려 하였으나, 칼빈은 내 직업 속에서 열심히 일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그의 예정론과도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칼빈은 누가 하나님의 예정에 들었는지는 알 수 없으므로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그렇게 하는 유일한 길은 그의 일상생활에서 최선을 다해 자신의 소명을 감당하는 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여기서 칼빈과 웨슬리는 성화를 중요시하고 있음을 알게 되는데 웨슬리가 칼빈에 비해 보다 더 적극성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V. 결 론

창조와 타락 그리고 회복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웨슬리와 칼빈의 인간 이해를 살펴보면서 그들이 처한 시대적인 상황들이 그들의 인간 이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음을 알게 되었다. 칼빈의 경우 종교개혁이라는 상황이 그로 하여금 인간의 노력이나 행함보다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강조하게 했으며 핍박과 박해의 위협 속에서 예정이라는 강력한 구원의 약속을 전개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마찬가지로 웨슬리는 점차 이성에 기대를 거는 구원론이 만연하고, 피폐해진 영국의 종교와 사회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화 중심의 인간관을 강조하게 되었던 것이다.

아울러 이 논문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두 신학자가 시대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신학적인 일치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들이 그러한 신학적인 일치를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말하는 신학이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며 성경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점과 관련하여 린드스트롬은 웨슬리에게 있어서 경험이 중요한 신학적, 신앙적 요소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 권위를 성경에 두었으며 성경을 언제나 기초로 하였다.”는 것을 강조한다. 심지어 웨슬리는 성경 안에 하늘나라에 이르는 길이 있음을 지적했고 천지는 없어지는 일이 있더라도 성경은 일점일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며 신약성경은 하나님의 귀중한 말씀의 기록으로서 진리의 아주 확고하고 지나침이나 부족함이 없는 천상(天上) 지혜의 원천임을 말하였다.<sup>276)</sup> 여기서 웨슬리가 철저하게 “한 책의 사람(Homo unius libri)”이 되기를 소망하였던 것을 짐작하게 된다.

이러한 경향은 칼빈에게도 확연하게 나타나는데 그는 기독교강요 1권에서 여러 장에 걸쳐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특히 칼빈은 성경이

---

276) John Wesley, *A compend of Wesley's Theology* (New York : Abingdon Press, 1956), 18-19.

창조주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사람에게 안내자요 교사로서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만 자신에 대한 실제적인 지식을 부여하신다”고 말하였다. 결국 두 신학자가 성경에 철저하게 기초를 두고 있으므로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인간이해는 대동소이(大同小異)함을 볼 수 있다.

본론에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론을 중심으로 인간이해를 살펴보았다. 여기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두 신학자의 공통된 견해를 살펴볼 때, 웨슬리는 본질적 형상, 도덕적 형상, 정치적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언급하고 있으나 칼빈은 그러한 구체적인 구분은 없지만 그 내용면에 있어서는 거의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 받음으로 그들은 거룩하고 완전했다. 또한 그들의 이해력으로는 옳은 것을 판단하여 그 이해의 인도 하에 의지는 선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었다. 또한 인간의 감정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게끔 창조되었다. 인간에게 주어졌던 의지는 선과 악을 자유로이 선택을 할 수 있었으며 그 선택의 결과는 인간을 타락의 길을 걷게 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범죄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인간에게 있다고 두 신학자는 생각하고 있다.

인간의 창조 목적에 있어서는 두 신학자 모두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존재로서 창조된 것에 두 신학자 모두 동의하고 있다.

창조와 마찬가지로 타락의 경우에도 두 신학자는 거의 견해의 일치 보이고 있다. 먼저 그들이 관심을 갖는 타락의 원인은 바로 불신과 그로 말미암은 불순종이었다. 이 불신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의지의 노예 신세를 면할 수 없고 하나님의 형상 대신 악마와 짐승의 형상으로 지니게 되었으며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에 지배를 받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참 지식에 이를 수도 없었고 그분을 사랑할 수도 없었다고 말하고 있다. 이렇게 타락된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불멸성 내지는 영원성을 상실해 버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으며, 도덕적 형상의 전적인

상실과 함께 본질적, 정치적 형상이 부분적으로 상실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는 것이 두 신학자의 견해이다.

타락 후 인간성 회복에 있어서도 많은 부분에 걸쳐 두 신학자의 견해는 유사하다. 먼저 웨슬리는 비록 인간이 타락하였지만 하나님이 선행적 은총을 통해서 인간의 양심, 그리고 자유의지가 어느 정도 회복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자각하고 회개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 칼빈은 예정의 은총을 말하면서 인간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전적인 무능과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은혜를 강조한다. 하지만 인간의 순종 여부나 반응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비중을 두기 때문에 하나님을 폭군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다.

웨슬리는 기본적으로 이중예정론은 거부하나 특별예정론을 주장하여 칼빈의 견해를 포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칼빈과 웨슬리는 인간 타락으로 말미암은 전적인 무능과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만을 강조하게 된다.

한편 웨슬리와 칼빈의 완전성화 모습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의하지만 그 시기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다시 말해서 칼빈도 인간에게 완전이 이루어진 후 그가 지닌 연약함과 실수로 타락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면 완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용인할 수 있다고 웨슬리는 말하였다. 하지만 그 완전의 시기에 관해서는 칼빈과 웨슬리가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이것은 칼빈이 이원론적 세계관과 내세지향적인 구원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기에 결국 두 신학자에게 있어서 완전사상은 보다 더 심오하고 신비적이나 완전 사상은 인간의 실수와 무지의 가능성을 인정한다는 점과 목적하는 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요 사랑의 실천이라는 측면에서 웨슬리와 칼빈의 폭을 좁힐 수 있다고 생각된다.

위에서 살펴본 인간의 이해는 구원론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므로 교파간의 신학적 갈등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의 여러 교파들의 교리논쟁과 신학 담론이 두 신학자의 구원론에 대한 오해에서 연유하였으나 본 연구를 통해서 웨슬리와 칼빈의 신학적 견해가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

었다. 하기에 이러한 견해 차이는 결코 교파갈등의 원인이 될 수 없음을 지적하며 현대의 교회들은 두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복음주의적 구원론을 속히 회복해야함은 물론 작금의 교회들이 보여주고 있는 비 복음적 자태에서 벗어나 상호 보완적이며 협력적인 관계개선은 물론 시대적 새로운 영적 대 각성과 부흥의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 ※ 참고문헌 ※

### 1. 단행본

- 김기련. 「기독교 영성사」 . 대전: 도서출판 복음, 2003.
- \_\_\_\_\_. 「세계교회사」 . 대전: 도서출판 근화, 2002.
- \_\_\_\_\_. 「종교개혁사」 . 대전: 목원대학 출판부, 2001.
- 김성환. 「칼빈주의 해설」 . 서울 : 엠마오, 1984.
- 김영규. 「조직신학편람」 3권 . 서울: 개혁주의성경연구소, 2003.
- 김영한. 「개혁신학이란 무엇인가?」 서울: 한국기독교학생출판부, 1995.
- \_\_\_\_\_. 「한국기독교문화신학」 . 서울: 성광문화사, 1995.
- 김흥기. 「구원의 완성을 향한 순례」 . 서울: 기독교대한감리회 홍보출판국, 2000.
- \_\_\_\_\_. 「존 웨슬리신학의 재발견」 .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6.
- \_\_\_\_\_. 「존 웨슬리의 구원론」 . 서울: 성서연구사, 1996.
- 박건택. 「칼빈과 설교」 . 서울: 도서출판 나비, 1988.
- 박윤선. 「성경신학」 . 서울: 영음사, 1987.
- 이선희. 「웨슬리신학의 탐구」 . 대전: 도서출판 복음, 2002.
- 이성주. 「웨슬리 신학」 . 서울: 도서출판 성지원, 1987.
- 이종성. 「칼빈」 . 서울 : 대한기독교서회, 1998.
- 전경연. 「칼빈의 생애와 신학사상」 . 서울: 한국신학대학 출판부, 1984.
- 조종남. 「요한 웨슬레 설교선집」. 서울: 도서출판 청과, 1994.
- \_\_\_\_\_. 「요한 웨슬레의 신학」 .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4.
- 한영태. 「웨슬레의 조직신학」 . 서울: 성광문화사, 1993.

## 2. 번역본

- Berkhof, L. 「기독교 교리 요약」. 박수준 역. 서울: 소망사, 1980.
- Boettner, L. B. 「개혁주의 신학연구」. 홍의표역 . 서울 : 보문출판사, 1975.
- Douglass, J. D. 「칼빈, 여성, 자유」. 심창섭 역 . 서울: 무림출판사, 1990.
- Ladd, G. E. *A Theology Of The Newtestament*. 「신약신학」. 신성종. 이한수  
공역 .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91.
- Lindstroem, H. 「웨슬레와 성화」. 전종옥 역 . 서울: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육국,  
1984.
- McKim, Donald K. 「칼빈신학의 이해」. 이종태 역 .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1.
- Niesel, Wilhelm. 「칼빈의 신학」. 이종성 역 .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1.
- Parker, T. H. L. 「존 칼빈의 생애와 업적」. 김지찬 역 . 서울: 생명의말씀사,  
1994.
- Wynkoop, Mildred B. 「칼빈주의와 웨슬레신학」. 한영태 역 . 서울 : 생명의  
말씀사, 1996.
- 부스마, 윌리안 J. 「칼빈」. 이양호. 박종순 공역 . 서울 : 도서출판 나단, 1993.
- 웨슬리, 존. 「중생」 . 박명수. 박도술 옮김 . 서울: 은성출판사, 1998.
- \_\_\_\_\_. 「존 웨슬리 설교선집 I」. 이선희 역. 대전: 도서출판 복음,  
2002.
- \_\_\_\_\_. 「존 웨슬리의 설교」. 김홍기 역 . 서울: 땅에쓰신글씨, 2001.
- 칼빈, 존. 「기독교강요」. 2권, 3권. 김충호 역. 서울: 한국출판사, 2000.
- 캐논, 윌리엄 R. 「웨슬레 신학」 . 서울: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육국, 1986.



### 3. 원서

Berkhof, L. *Systematic theology*. Eerdmans, 1979.

Brummer, Vincent. "Calvin, Bernard and Freedom of The Will." *Religious Studies* 30 (1994)

Calvin, John. Mary Beaty. and Benjamin W. Farley. *Calvin's Ecclesiastical Advic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1.

Wesley, John. *A compend of Wesley's Theology*. New York : Abingdon Press, 1956.

### 4. 학술논문

장연안. "자유개념의 변형구조." 대구: 기독교대학설립동역회 출판부, 1992.

김기련. "칼빈의 교회 이해." 「신학과 현장」 제12집 (2002).

이선희. "기독교대한 감리회 「교리와 장정」(1997년 개정판) '제2장 교리'에 대한 웨슬리 신학적 관점에서의 연구." 「신학과 현장」 제10집 (2000).

\_\_\_\_\_. "John Wesley의 선행은행(Preventing Grace)개념에 대한 소고." 「신학과 현장」 제11집 (2001).

이오갑. "인간론." 「칼빈신학해설」. 서울 : 대한기독교서회, 1998.

이후정. "존 웨슬리의 생애와 사상." 「웨슬리와 감리교신학」. 한국웨슬리 신학회 편 . 서울: 감리교신학대학교 출판부, 1999.

임승안. "요한 웨슬리의 생애." 「존 웨슬리의 역사신학적 조명」. 김흥기 외 공저 . 서울: 감리교신학대학교 출판부, 1995.

황성규. "칼빈의 의인론." 「칼빈의 신학적 이해」. 서울: 한신대학교 출판부, 1978.